

# 겨 자 씨

2  
0  
2  
1  
겨  
울  
호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 목 차

## 칼럼

- 03 2022년 사역 방향을 나누며 / 김준섭 담임목사
- 06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 이강현 행정목사
- 09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 곽명철
- 11 모더니즘의 함정 / 엄두간

## 간증

- 16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 조귀애
- 18 My Tesimony / 민현진

## 목장 소개

- 20 말씀과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 안디옥 목장

## 문화 산책

- 22 리틀보이 / 김상보

## 행사 소개

- 26 EM & 청년부 Banquet / 전해나
- 28 Fall Fest 2021 / Jessica Um
- 30 Operation Christmas Child / Nia Choi

## AKPC 조직도 & 2022년 행사 일정표

- 32 교회학교 조직도
- 34 2022년 주요 행사 일정표

## 선교 통신

- 40 11월 알래스카 선교 보고 / 장준오 선교사
- 42 태국 선교 / 한준소, 이윅희 선교사
- 45 남아프리카공화국 / ABBA
- 56 태국 선교 / 이세우, 고세령 선교사
- 57 브라질 선교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8호 발행일 2021년 12월

주소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전화 : 512-454-1727  
팩스 : 512-454-6888  
이메일 : akpc@akpc.org  
홈페이지 : <http://www.akpc.org>

발행인 : AKPC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편집인 : 곽명철, 양민희,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전해나, 이령희

# 목사님 칼럼

2022년 사역 방향을 나누며..

김준섭 담임목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중에서, 주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산책 AKPC’의 비전을 품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예수 산책 비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매일 QT에 참여하고, 가정과 목장에서 QT 나눔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새 해에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II’를 표어로 삼고, 말씀 공동체의 비전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사역 방향을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3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공동체 지속, 기도 사역의 확대, 목장의 회복입니다. 말씀공동체가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QT 생활화에 힘쓰고, QT 나눔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 성경 세미나(5월)와 부흥회(10월)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담임목사와 함께 하는 문학 산책과 교리 산책도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역사합니다. 개인 골방 기도, 중보기도, 토요 무릎 기도회 등을 통해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차게 말씀 사역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성도님을 중보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다소 침체된 우리 목장 모임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재활성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지체들을 세우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정교회를 세우도록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목자와 목녀의 격려와 재충전을 위해 ‘목자 목녀 1일 영성 세미나(3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역의 가장 큰 변화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1:1 제자 양육’의 도입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더 이상 교회만이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교회와 함께 자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자녀교육의 원리이고, 팬데믹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매 주일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family talk 시간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는 교회의 전 세대를 한 말씀으로 묶어주어, 세대통합의 은혜와 기쁨도 넘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삼 세대가 함께 식탁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 66권의 스토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건전한 교리를 기반으로 들려주고, 삶의 적용과 선교적 실천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을 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이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16주 동안 인도자와 동반자가 만남을 갖고, 말씀을 기초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16주 과정을 마친 동반자는 인도자 훈련을 통해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자 공동체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시작될 제자훈련(9개월 과정)을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에 참여할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인도로 목회자들이 9개월 동안(2022년 9월-2023년 5월) 제자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의 제자훈련 DNA를 공유할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목회자의 인도로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개인 경건 훈련, 교리, 제자의 삶을 배우고 훈련받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님은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제자훈련이 교회에 정착된 이후 적용 계획).

끝으로,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러브 어스틴, 러브 남부 아프리카’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러브 어스틴’ 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미국, 그리고 어스틴이 선교지입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웃으로 보내주신 다민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흠리스와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커뮤니티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어



스틴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러브 남부 아프리카’ 비전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목장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위한 선교를 지속하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회의 전략적 선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세계 열방 중 남부 아프리카(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등)를 교회가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를 다시 복음으로 일으키고,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나라는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AKPC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준섭 담임목사



# 목사님 칼럼

이강현 목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10월에 행정 목사로 부임한 이강현 목사입니다.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면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김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 후 전주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 타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온 가정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들, 모두 여섯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늘 잠재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장남이기 때문에 많은 제사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은 저와 누나들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후,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누나들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처음으로 누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누나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놀이터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익숙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례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은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부터 학부 연구생으로 선발되어 지도 교수님의 지도 아래 대학원 실험실에서 미리 대학원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과학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실험실에서 대학원에서 진행할 실험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시험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를 불안감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과학자가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면 한 달 안에 모든 상황(학교와 가정)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 시험 준비를 포기하고, 지도 교수님께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도 친구에게 다 인수인계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상황 정리가 생각보다 수월하게 빠른 시간 안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관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하면서, 시골집에 내려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대학원 시험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학교와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한 달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참 지난 후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아들로 인해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묵을 승낙으로 알고,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었을 때는 이미 신학대학원 시험이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총신대학교 학사 편입을 위해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처음 합격자 발표 명단에는 이름이 없어서 떨어진 줄 알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추가 합격하였다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후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10월에 서평양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교회 사역은 서울 사당동에 위치한 성진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 2001년(1월)부터 2007년(7월)까지 약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으로 등록해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신학대학원 입학 후 교역자로 임명되어 교회 행정과 교육부 사역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t Worth, TX]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가정 상담 과정과 기독교 교육학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고, ‘교회 행정’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비록 학업을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교회와 사역에 공부하며 배운 것을 적용하기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한 교회가 한마음 교회[Fort Worth, TX]입니다. 그곳에서 14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 생활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사역과 섬김을 통해 성도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2003년에 결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대학 시절 하나님께 사모로서 부르심을 받아 저의 목회에 큰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 포트워스 한국학교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음악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Ethnic Group Academy 난민 선교단체에서 난민 아이들의 합창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반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 귀한 세 아들을 보내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1학년인 첫째 성현이와 10학년 둘째 규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길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학년 막내 호현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함을 확신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독자 칼럼

##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곽명철

이번 겨자씨 겨울호를 위해서는 복음주의의 신학 논쟁 (그레고리 A. 보이드, 폴 R. 에디 (지은이), 기독교문서선교회(CLC))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이민교회가 어떻게 구원, 예정, 성경의 무오론 등의 전통적인 신학적 차이점이나, 영적 은사, 여성 사역, 천년왕국과 같은 실천적 분야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지를 다루어 보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의 ‘기생충’이란 영화에 이어, 최근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무비/드라마들이 연달아 세계적 인기와 주목을 얻게 되고, 음식, 패션, 음악 등의 많은 K 문화적 콘텐츠의 부상을 보면서, 이런 현상은 이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고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국을 사랑하는 이 땅의 이민자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더욱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사전인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24개의 한국어 단어들(가장 관심이 쏠리는 단어는 ‘fighting’)이 새로이 등록되는 일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단어는 ‘fighting’이라는 단어의 경우였다. 원래 영어로서 그 뜻하던 봐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응원이나 격려의 구호로 오랫동안 인식하고 사용해 왔다. 한국에서 사용/유통되면서, 전혀 다른 뜻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전 세계적 ‘K 문화의 유행과 발호’ 속에서, ‘선교 강국’이라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왔던 저에게 한 권의 책과 내용들이 겹쳐져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로만 여겨지고 알려졌던 역사적 내용들이, 2006년 책 한 권이 출판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이에게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요한의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생각의 나무)이라는 책이다. 교인들에게나 대중들에게는 선교사 ‘언더우드’로 잘 대변되는 미국 북장로교와, 아펜젤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의 한국 선교사가 잘 알려져 있다. 또 다소 가려진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는 갑오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893년 선교사 레이놀드의 사역으로 시작되어, 전주서문(밖)교회 개척이 호남 선교의 첫 열매로 기억되곤 했다. 하지만 2년 뒤 1895년 목포와 광주에서 또 다른 남장로교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6년 만에, 자신이 지방 선교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풍토병에 걸린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과 딸을 품에 안고 순교했음에도 전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가 된 외증조할아버지 유진 벨 선교사(한국명 배우지), 명문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보장된 GE의 입사를 거부하고 불모의 땅 조선에 선교사로 온, 후일 한남대학교를 세운 할아버지 윌리엄 랜튼(한국명 인돈), 한국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태어난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한국을 위해 싸웠고, 호남 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아버지 휴 랜튼 (인휴), 한국 전후 결핵 퇴치 사업에 크게 공헌한 엄마 로이스 랜튼 (인애자), 개척교회의 건축자재를 싣고 가다 상대방 음주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아버지 휴 랜턴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승화시켜 한국형 휴 랜턴 선교사역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의료선교사업을 하는 인요한 자신…,

물론 책에는 선한 사라미아 선교사라 불리는 포사이트선교사와 길거리에 버려진 한센병에 걸린 한 불쌍한 여자아이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한국 한센병자에 대한 선교와 그 치료 시설의 건립 등, 복음을 위해 자신들과 가족들을 아낌없이 불태웠던 선교사들과 눈물 없이 지날 수 없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겨울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운, 고향 여수의 애양원의 100년의 역사의 시작을 전혀 뜻밖의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혼들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아무 연고 없는 이방인 땅에 심었던 사랑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한국을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의 두 가지의 과업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Covid Pandemic으로 인해 앞당겨진/가속화된 미래로 인해 가장 영향력이 극대화된 나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면서, 거의 모든 문화의 콘텐츠가 부담 없이 수용되고 있는 현상을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선교역사 130여 년 만에, 180여 개 국에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선교역사를 30년 이상 앞당긴 것이 한국교회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처럼 돈, 명예, 권력에 휘둘리고, 교회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면서, 더욱 세속화되어 갔다. 그 사이에,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나 책망을 할지언정, 분노하고 정죄하며, 직접 정치에 개입하거나 거리에 뛰쳐나가며,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인 영혼 구원과 섬김에 전념 못 하는 사이에, 외형적인 성

장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또 맘몬주의, 성장주의, 다원주의의 도전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신학의 유산의 찌꺼기들과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세상과 만방에 전파 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140여 년 전 목포와 광주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사랑과 복음을 이제는 더 순전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찢기고 상처받은 만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일에 사용되는 한국 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 독자 칼럼

## 모더니즘의 함정

엄두간

세태에 휩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를 떠나 살 수 없기에 세태에 휩쓸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본 후, 어떤 기사에서 던진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사람들과 후원하면서 보고 즐겼던 VIP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 속에 숨어있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그 어느 매체보다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공감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자연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생명현상이기에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더라도 생존의 DNA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있기 때문이고 오징어 게임은 그 잠재의식을 에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적 능력은 문명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씩씩한 코멘트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상징하는 문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과 그 방식, 그리고 수많은 사회영역에서 한 세대를 정의한다고 하겠습니다. 문명은 언제나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변화의 방향성에 선과 악의 개념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어서 선과 악의 개념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문명은 인간에게 다양한 이기를 선물하며 더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특별히 주님

의 창조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성도로서 영적인 문명을 외면하고 사회적 문명에만 기대어 살다 보면 인생의 거대한 파고에 휩쓸려 결국 인생의 과멸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았다고 해서 과멸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무엇이 나로하여 금 세속적인 문명들을 탐닉하게 하고 혹 그 속에 잠재되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잘 이해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물질 문명적 발전에는 음과 양이 항상 존재하므로 무엇을 배우고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 지에 대한 스스로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믿는 자로써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문명의 발전을 누리되 스스로 준비하여 그 거대한 파고에 숨어있는 영적인 함정들을 깨달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인간 사회의 문명사적 발전과정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 알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문명에 대한 짧은 고찰을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과 경쟁하던 원시시대를 거쳐 물질 문명이 부흥하면서 인간 끼리의 약육강식과 쟁탈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사를 유럽사에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절대 신의 개념이 정립된 세계에서 발생한 문명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문명의 발전사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에 의한 제국시기를 지나고 유럽은 중세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인

간의 문명사적 발전단계로 보면 암흑시대라 할 중세시대는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신정국가들이 탄생하면서 인간의 원시적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문명화되어간 중요한 단계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한 인간의 사고력은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되는데 발전이라는 말이 내포하듯이 변화는 항상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에 합리적 이성이라는 기치 아래 신정을 부정하는 새로운 문명으로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중요한 구호들이 떠오릅니다. 그 첫째가 ‘합리적 이성’ 이고 둘째가 ‘이분법’, 그리고 마지막이 르네상스로 대변되는 ‘계몽주의’ 입니다. 이분법은 옳고 그름, 위와 아래, 본질과 비본질과 같이 세상을 흑백의 논리로 보고자 하는 문명사적 사조입니다. 이 시기는 동양에서도 성리학파 같이 본질 비본질, 적자 서자, 남존여비 등의 사상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사상들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의 인간사회를 잘 설명하는 거대담론들이 줄줄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대 담론의 몇 가지 예를 들면 헤겔의 변증법, 동양의 음양론, 그리고 유물론 등이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나 음양오행론 등은 인간의 삶과 사회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담론들이라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지만, 유물론에 이르면 신앙인으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문명에 과연 잘 부합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관념론과 유물론>

유물론이 탄생한 배경에는 관념론이 지배했던 중세시대의 문명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존재합니다. 즉 유물론은 관념론과 대립되는 세계관으로 후에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 유물론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물론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유물론은 세계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보는 입장의 문명사적 논리입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관념론은 종교나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를 주장하고 삼라만상의 근원에는 정신적 존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즉, 모든 물질은 정신적 근원에 의해 파생되므로 물질보다는 관념이 더 중요하다는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관념론은 또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으로 나뉘는데 객관적 관념론은 배후에 우리와 동일한 정신이 존재하고 이러한 정신이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즉, 종교적 태도와 매우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의 틀을 완성하였다 고도 일컬어지는 성 오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도그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관적 관념론은 각자가 느끼는 관념만이 진실이며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객관화 시켜 세상의 진리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진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사실주의의 토대가 되는 세계관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설파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 합리적 이성으로 유명한 칸트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과학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그마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관념론을 통치자들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했다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종교야말로 인류의 문명과 사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사실은 설사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물론은 모든 현상의 근원은 물질대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과학의 시작을 유물론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신의 영역으로 두고 의지하던 기후나 자연현상을 좀 더 도전적으로 이해하고 삼라만상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태동한 이념입니다. 적 유물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하여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인류의 삶을 풍성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에서는 관념조차 뇌의 물질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세

상 무엇보다도 물질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유물론과 관념론처럼 확연히 대비되는 두 가지의 또 다른 세계관인 변증법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변증법적 세계관과 형이상학적 세계관>  
 물질과 관념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세계관과 더불어 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호 대립적인 세계관으로 변증법과 형이상학이라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두 세계관이 있습니다. 발전과 회귀라는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자연스레 잉태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데 변증법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기본적 사고의 틀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모든 것은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에 반해 형이상학은 존재의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작하여 세상만사는 원래의 근본케도를 바탕으로 반복된다는 세계관을 펼쳐보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틀을 흔들어보고 싶었던 니이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저서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영원회귀론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변증법(dialectics)은 수사학에 사용된 기법으로 상대의 말에 숨어있는 모순을 찾아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수사법이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설교하던 소크라테스가 주로 발전시킨 수사기법이라 알려져 있으며 사실 그는 수사법으로 주위에 많은 적을 만들면서 사약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헤겔은 논리에 숨어있는 모순에 주목하여 변화 발전의 원동력을 모순으로 보았고 세상의 어떠한 논리에도 모순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며 이로 인해 세상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변증법에 기초한 철학적 기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변증법의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대립 물의 투쟁과 통일법칙 (예, 생명의 원리도 이화작용(배출)과 동화작용(흡수)에 의해 이루어짐, 우주의 별도 인력과 척력에 의해 별의 탄생과 소멸을 확립) - 삼라만상의 변화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

2. 양질 전환의 법칙 (크기나 무게가 변하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면 상(phase)이 바뀌면서 변화발전) - 사회의 체제변화도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면 변혁이 이루어진다.

3. 부정의 부정 법칙 (삼라만상이나 세상의 법칙은 자신과 다른 무언가로 지속해서 바뀌면서 보다 진화된 새로운 사물이나 원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헤겔은 형식논리학이었던 변증법을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철학으로 승화시켰던 것인데 그는 사실 변증법적 관념론 주의자로 변증법 자체가 신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로 인식하며 세상이 변화하는 이유는 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합니다. 즉, 변증법이 태동한 이면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깔려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신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퇴보될 것이라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 이후에 등장한 포이엘 바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관념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어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제창하였는데 그의 저서인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에게 신인 것은 인간의 정신이며 신은 인간의 내면이 나타난 것이며 인간 자체가 표현된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숨겨진 보물이 가장 장엄하게 공언된 것이며 사랑의 비밀이 공공연하게 고백 되는 것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즉, 헤겔이 변증법적 관념론자였다면 포이엘 바하는 헤겔과는 다르게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하여 형이상학적 유물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탐구의 대상이 신에게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지는 문명사적 변혁이 일어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그의 철학적 기획은 바로 기독교의 근본은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추구한 형이상학자이었고 세상의 모든 현상은 물질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유물론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기독교는 서양의 특정한 시간과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인데 그러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 했으므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후에 마르크스는 그를 역사론적인 유물론자로 보기는 힘들다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유물론자임을 자칭하였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역사론적 유물론자들이 르네상스를 유물론의 결과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등사상은 예전부터 이미 존재했으나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의 형태로 강조되어 르네상스로 승화된 이유는 신분제의 모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중세귀족들이 당시 대부분의 노동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상공업계급의 부상으로 노동력 부족과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노들을 해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위해 상공업자들이 신분제 폐지를 뒤에서 조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르네상스는 당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공업계급의 입맛에 딱 맞는 논리였으므로 그들이 이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역사론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볼 때 르네상스는 봉건영주들과 신진 상공업자들 간의 물질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였다고 해석되며 모든 삼라만상의 바탕에는 물질 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이해해야 삼라만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적 기획을 바탕으로 모더니즘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유물론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물론이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중세 이후 인류의 문명은 신으로부터 떠나 스스로의 사고와 이성에 부합한 세계관이 정립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의 문명은 그 발전 방향이 영적인 문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과학사적 관점에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인류의 지식이 쌓이면서 나타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지만 인류의 문명을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보수의 바람직한 가치는 모두 버리고 삶의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가치로 도배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를 풍미한 거

대 담론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경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등장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정치),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정신) 등이 있으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큰 화두로는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로 대변되는 진화 심리학(사회) 등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의 자연 선택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한 진화 심리학은 그 취지를 잘못 받아들일 경우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그마라 생각되는데 믿음을 공고히 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도그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개체의 존재 방식과 각 존재의 당위성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생명체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포괄적 적합도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 이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목적에 포괄적으로 적합한 행동이나 생각만 지속적으로 남아 그 생명체의 존재방식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생명체의 존재방식과 발전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과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설명해내는 연구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진화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현존하는 생명체와 그 사회 현상의 존재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DNA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한 도구일뿐 존재의 가치와 당위성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접시 하나라도 어떤 물건을 담기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무엇을 담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그 존재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칫 세상의 문명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의 내면과 외면을 함께 볼 수 있는 관점을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세대에 휩쓸리듯 평생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을 자신도 모르게 무너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있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사실들조차 ‘해체’라고하는 특유의 접근법을 통해 옛것으

로 여기고 틀린 것이란 없으며 서로 다를 뿐이라는 모토하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사조를 탄생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이합집산하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또다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8일 주일 설교 때 이강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굳이 생각해보면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태어날 때 발한 무한한 에너지를 통해 지음 받은 존재들이고 그 창조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난 자들로서 그 에너지를 나누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모든 생명체들은 가장 활성화되고 최고의 에너지 상태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선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태동한 그 어떠한 도그마가 세상을 휩쓸지라도 한가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당위성을 느끼고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시원한 샘물보다 더 촉촉하고 시원한 말씀과 성령이야말로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도그마라도 감히 줄 수 없는 선물이며 믿는 자의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권리는 찾아 누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휴지처럼 소멸됩니다.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간증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 10;3)

조귀애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마주하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큰 굴곡 없이 이민 생활을 이어가며 편안하게 지내던 어느 일상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도 가족 모두 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가득했던 뉴저지 생활이 10년이 넘어가고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되었고, 남편은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안정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시점이었지만, 저희 남편과 저는 걱정과 불안보다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텍사스 오스틴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고, 큰아이는 10학년을 끝내고 11학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들고 익숙한 동네와 교회를 떠난다는 게 마음처럼 내키는 상황은 아니었고 설상가상으로 오스틴은 갑자기 집을 구하기 너무 힘든 지역이 되어, 텍사스라는 나선 동네에 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뉴저지 교회에서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한참 묵상하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심장의 피가 되어서 저를 움직였고, 집보다도 교회부터 알아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알아봐 주시던 권사님을 통해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소개받고 그날부터 뉴저지에서 오스틴 교회의 설교 말씀을 온라인으로 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 절로 나오는 한숨과 걱정 섞인 말들을 내뱉는 저를 회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하루 오스틴 한인 장로 교회도 출애굽기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끝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 앞에서 싸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머리에 박히면서 작은 과편처럼 제 주변에서 저를 괴롭히던 근심과 고민이 한번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를 낫선 곳으로 내보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먼 곳을 가라고 하시나요? 가라고 하시니…….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했다고 하시니……. 뒤에서 미시니 믿고 가야 하겠죠?” 하면서 제 평안함에 변화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뒤에 계신 것처럼 뒤돌아보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가 갈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내디딜 길에 흑여 돌부리라도 있어 걸려 넘어질까 봐 맨손으로 치우고 있으신 것도 모른



체 그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평탄치 않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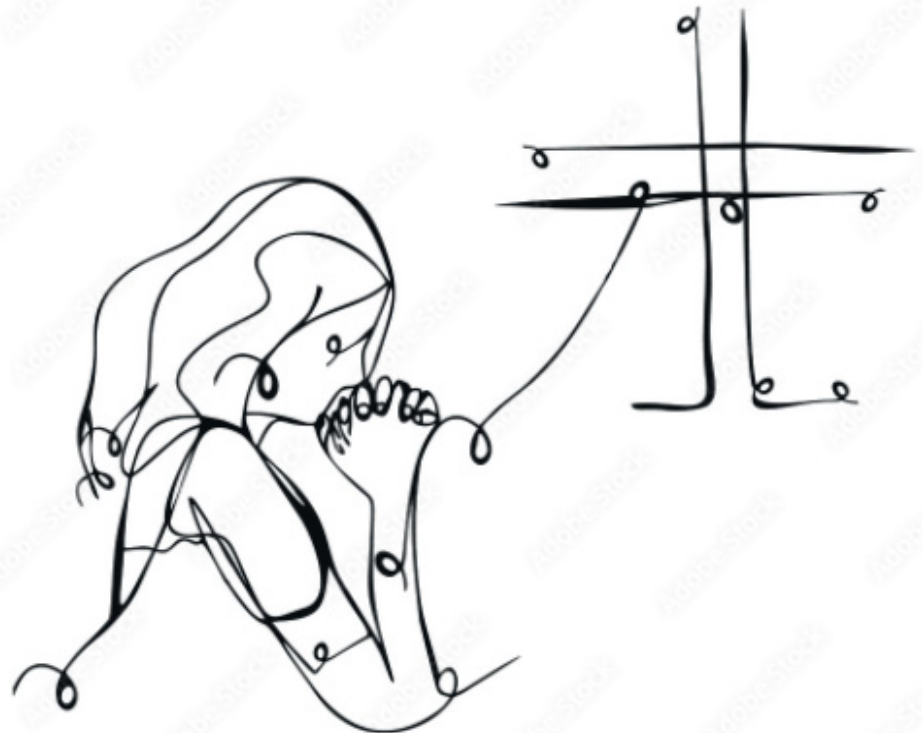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 앞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발 앞에 떨어진 불씨부터 치워 달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싸우시면서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자 오스틴으로 오는 마음도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그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기 전부터 이곳 예배를 드려서 그랬던지 오스틴 도착해서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나가 보니 교회도 교인분들도 목장 식구들도 목회자분들도 낯설기보다는 함께 오랫동안 섬기고 교제 하던 느낌이 들어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도 빨리 정착하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떠나기 전 뉴저지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쌍둥이네는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텍사스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출애굽기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더욱 섬기기 위해 저희를 이곳에 보내심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간증문

## My Testimony

Justin Min (민현진)

I gave up on God until He was the only thing that I had left. Growing up in a Christian home, going to church on Sundays was a given. My grandparents, who were very devout Christians, always recited scriptures to me and taught me things that I should and should not do. I tried my best to live as a good person because I knew He was watching my every move. I knew so much about Him, yet I did not know Him personally. This all took a turn when I went through the lowest and darkest point in my life. It all started when my family had moved from New York City to a small rural area in Asheville, North Carolina, a place I've never even heard of. This transition, along with going through high school, eventually brought me to a place where I was left with a big void inside me. I was depressed, angry, and lost. I ran away from God and turned away from everything I knew about Him. I chased after partying, drinking, drugs, and women. I was desperately searching for something to fill the void I had in my heart and to find joy. In the end, all these experiences satisfied the flesh momentarily and left me with a bigger void of emptiness and despair. That's when I gave up and decided to pray which went like "God, I don't know if you are real, but if you are, please show me. Please prove to me that you are real."

I repeated this prayer until He finally answered.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8-9). This scripture comes to mind when I think of all the ways He answered my prayers because his response is never close to what I expected or imagined. It all started with a girl named "Anne". I first met Anne when I moved to Asheville in a small Korean church. She was the daughter of the senior pastor. To be honest, she was one of the gloomiest persons I have ever met. She moved far away from home to attend college, and I did not meet her again until she returned home during her break from college. She was not the same person I knew when she came back home from college. She had this bright, joyous spirit in her that I had never seen before. Out of curiosity, I asked her what had happened to her in college that changed her. Long story short, she told me her story of encountering God personally. She did not know I was desperately praying to God to show Himself to me. "...faith comes from hearing..." (Romans 10:17). After hearing her story, I was inspired and found hope that God just might be real. I prayed harder, searched, and waited, believing He will answer my prayer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Matthew 7:7). The first encounter I had with God was when Anne had invited me to a new church. Just walking into this church, I could feel that the atmosphere was different. People had passion and hunger for God I had never seen. The pastor at the end of the sermon invited people to come to the altar to receive prayers, and I ran up because I just wanted to. People I had never known surrounded me, hugged me, and started praying for me. That’s when I first heard the still small voice of God. He whispered, “I have always been with you, and I have always loved you.” I was totally wrecked; I broke down in tears and every anger, fear, sorrow, and hopelessness was instantly vanished. I was covered with unexplainable peace and joy. I had just encountered the one and only living God. From then on, God revealed more of the Himself to me in many ways. “... I was blind but now I see!” (John 9:25). Jesus died and saved a sinner like me and showed His love to an undeserving person like me. This is the only reason why I decided to share my testimony.

By no means has my life been perfect; it’s been far from it and I struggle daily. However, I know He who began a good work in me will carry it on to completion (Philippians 1:6). He is constantly shifting my paradigms of Him and continues to teach me that He makes all things new (Isaiah 43:19). I thank God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share what He has done for me. God isn’t afraid of our questions, and he doesn’t ignore or belittle us in anyway. He cares for us (1 Peter 5:7). He knows every detail of our lives and knows the number of hairs on our head (Luke 12:7). So, I encourage you to keep asking, seeking, and knocking! “I pray that you will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1 Timothy 6:12). “Now to him who is able to do immeasurably more than all we ask or imagine, according to his power that is at work within us, to him be glory in the church and in Christ Jesus throughout all generations, for ever and ever! Amen” (Ephesians 3:20–21).



# 말씀과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안디옥 가정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옥 목장의 목녀로 섬기고 있는 엄경미입니다.  
저희 안디옥 목장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형태 목자와 저를 포함하여 얼마 전까지는 세 가정이 있는 소박한 목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줌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며 겨우 몇 번의 실제 만남 밖에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만날 때에는 늘 주님안에서 웃음이 넘쳐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목원들이 모여 QT Tree Festival에 참석하여 경품 상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참석률 1등 상도 받은 것은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다 같이 햄버거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처음 아이들은 만났음에도 헤어지기 싫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을 떠난 지 11년이 되가는 지금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때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정말 가족같은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기에 저는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4기 새가족 입교식을 통하여 선물 같은 새로운 두 가족이 합류하게 되어 현재는 총 다섯 가정으로 함께 하나님의 길을 손 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많이 부족한 목자, 목녀를 믿고 기꺼이 같이하는 감사한 우리 네 가정의 안디옥 가족들에게 늘 감사함 마음을 지니고 앞으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목장으로 거듭나도록 목자님과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아 집사 가정

QT Tree Festival에 전원 참여한 가정교회!

물론 인원이 적어서 많은 이득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식구가 모였던 대단한 안디옥 목장을 모두들 기억하시죠? 가정 예배 때마다 귀한 말씀 나누어주시고, 가정교회 식구들 먹이려고 24시간 동안 BBQ 고기를 구우셨던 안형태 목자님, 우리에게 말씀 양식 먹이려고 QT교재 챙겨주시고 매일 알림 해주시고, 낚시여행에서 입으로 먹을 양식을 매 끼 손수 차려 주셨던 엄경미 목녀님, 동생들 위해 그네도 밀어주고 식사 전 대표기도도 잘하는 수빈, 우진, 우성이와 함께 하는 가정교회! 주님이 예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가정교회!

우리는 안디옥 가정교회입니다.

It is fun. - 손승완 (8th grade)

I like it because everyone cares for each other and helps each other. - 손윤지 (6th grade)

## 이유리 집사 가정

어스틴에 온 지도 거의 일 년이 되어 가고, 안디옥 목장에 배속된 지는 반년이 좀 넘었네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이었는데 목장 가족들이 먼저 손 내밀고 다가와 주시고, 이곳에 적응하는 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스틴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시는 목자&목녀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 묵상으로 게울려진 신앙을 다잡게 되고, 기도 나눔을 통해 서로를 든든히 세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만남을 예비하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집사님 집에 놀러가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놀아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 신영서 (2nd grade)

언니, 오빠들이랑 놀이터에도 가고 그네도 타서 좋았어요. - 신미서 (1st grade)

## 안형태, 엄경미 집사 가정

안녕하세요? 안형태 목자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동행해주는 목원 가족들과 목장



의 살림을 도맡아 주고 있는 목사님 덕분에 걸음마 수준의 목자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좋은 자매님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새롭게 같이 할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My favorite memory from 안디옥 is when we visited the duck pond and ate barbecue and roasted marshmallows together. In the future, I want to create more memories together and spend time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hope we can be sisters and brothers that share prayers requests and be vulnerable to each other. -안수빈 (12th grade)

A happy moment that I remember with the House church was the time when we all had a gather over at my family's house. I specifically remember when we all went outside to have fun at the playground, it was just a very relaxing and pleasant memory that'll stick with me for some time. -안우진 (10th grade)

I wish to get closer with all the younger kids. Even if I'm several years older than a lot of the kids, I still want to get close with them and make more happy memories. -안우성 (8th grade)



QT  
FESTIVAL

# 문화산책

김상보



가슴이 따뜻해지는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 <리틀 보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편에 이어 독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는 영화로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잔잔한 감동을 선물해 주리라 예상해 봅니다.

때는 1940년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 사는 8살 남자아이 Pepper Flynt Busbee (Jakob Salvati)는 아빠 James와 각별한 사이입니다. 아빠 제임스는 태어나자마자 아주 작은 체구를 가진 폐퍼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 어느날 8살 폐퍼는 병원 의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자기가 난쟁이가 아니냐고, 하지만 의사는 폐퍼에게 말합니다. “음... 지금은 네가 아직 Little Boy라고만 생각하자”. 그땐 몰랐습니다. 그 리틀보이란 말이 자신의 별명이 될줄은. 그리고 그로 인해 놀림감이 되리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리틀보이의 형 런던이 입영통지서를 받아 입대하려 하나 그의 평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 그의 아버지 제임스가 대신 차출되고 사랑하는 아빠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집을 떠나자 리틀보이는 상심에 잠깁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폐퍼, 리틀보이는 동네 신부님인 올리버 신부님이 들려주는 성경 구절을 듣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구절은 어린 리틀보이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부를 수 있으리라 믿게 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신부님은 마음에 증오가 있는 이는 결코 믿



음이 성장할 수 없다고 알려주면서 아버지를 데려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인이자 동네 이웃인 하시모토 아저씨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해보라 권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틀보이가 속해있는 백인투성이 작은 마을의 정서는 일본인들을 증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주위의 영향을 받은 리틀보이는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집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하시모토 아저씨에게 다가간 리틀보이는 뜻밖에도 하시모토 아저씨에게 자신의 작은 키로 놀려대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어 대항하라고 가르쳐줍니다. 하시모토 아저씨 역시 고향을 멀리 떠난 이민자로 전쟁 와중에 이웃들에게 당하는 학대와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조금씩 하시모토 아저씨와 친해지며 용기를 얻어가던 중 올리버 신부님은 리틀보이에게 아버지를 빨리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해야 할 일 리스트를 전해줍니다.

#### Works of Mercy (자비의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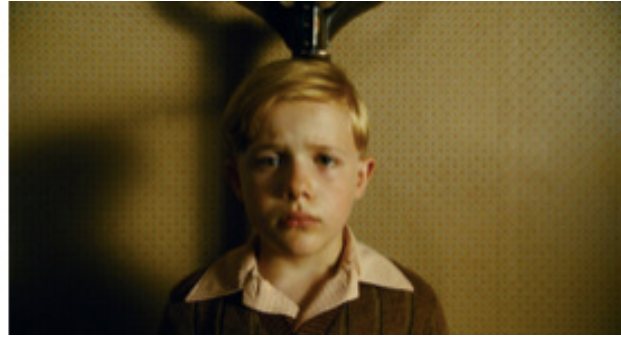
1. To feed the hungry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2. To give water to thirsty (목마른 자에게 물을)
3. To cloth the naked (헐벗은 자에게 옷을)
4. To shelter the homeless (집이 없는 자에게 쉼터를)
5. To visit the sick (아픈 자를 방문)
6. To visit the imprisoned (간힌 자를 방문)
7. To bury the dead (죽은 이를 매장)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볼 때 참으로 당연하지만 가치 있는 일로 보는 이 7가지 리스트는 천주교와 감리교 등에서 속죄와 고행의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위에 말씀드린 7가지는 Corporal 즉 신체적인 자비 행위를 말하며 Spiritual 정신적인 7가지 자비 행위도 있습니다.

1. To instruct the ignorant (무지한 자에게 가르침을)
2. To counsel the doubtful (의심 많은 자에게 상담을)
3. To admonished sinners (죄 많은 자에게 충고를)
4. To bear patiently those who wrong us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자에게 참을 수 있고)
5. To forgive offenses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6. To comfort afflicted (괴로워하는 자에게 위안을)
7. To pray for living and the dead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하여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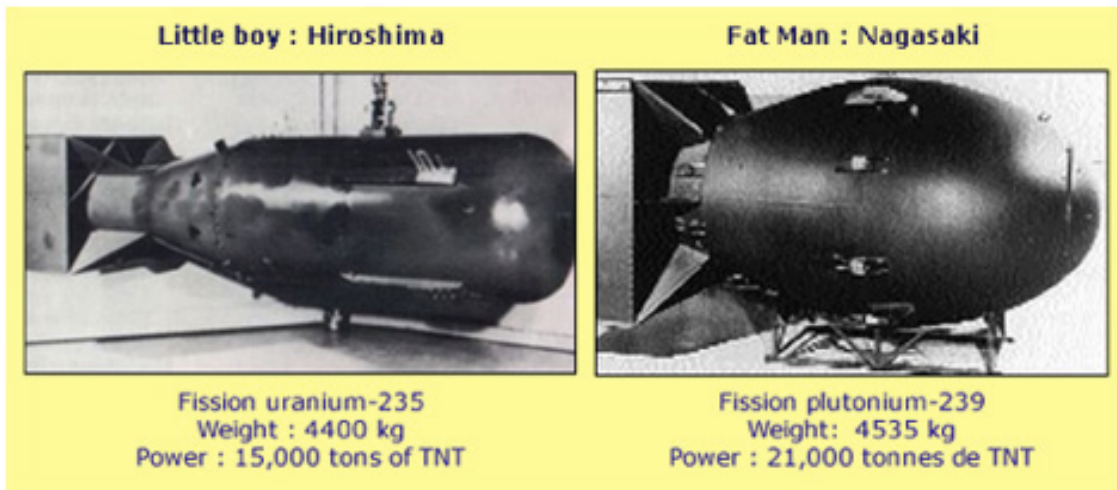
이 겨자씨를 읽고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 형제자매들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계신지.





The Seven Works of Mercy, by the Master of Alkmaar in 1504, for the St. Lawrence church in Alkmaar

하지만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어머니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그 와중에 아버지 제임스의 “전투 중 행방불명”이라는 군에서 전해온 소식을 접한 형 런던과 전쟁 중 자기 아들을 잃은 샘은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이기지 못하고 합심하여 하시모토 아저씨를 습격하여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처를 입히고 경찰에 체포되지만 어떤 일인지 하시모토 아저씨는 그들의 구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리틀보이는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주인공의 초능력을 동경하여 마치 겨자씨처럼 산을 움직여 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의 필리핀 전투 중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리틀보이에게 하시모토 아저씨 역시 전쟁 중 가족을 잃은 사연을 전하며 믿음에 관해 서로 얘기하며 위로합니다. 전쟁은 막바지에 이르고 결국 미국의 큰 거 한방으로 일본은 전쟁에 굴복하고 마는 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져 일본을 굴복시키는 폭탄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Little Boy”, 우연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승전의 기쁨과 함께 폐피, 즉 리틀보이가 믿음을 키워 결국 일본을 굴복시켰다고 환호하지만...



영화 <리틀보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에 징집된 아버지를 돌아오게 한다는 폐피의 위대한 도전을 통해 가슴 뭉클한 가족애를 그려내어 1998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외와 1999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1997연작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평론가들에게는 혹평을 받았고 대부분의 종교색이 짙은 호소력으로 다가오는 영화가 그렇듯이 흥행에도 참패를 면치 못한 영화입니다. 제작비부터 문제가 많았고 멕시코계 감독에게 할리우드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는 후문이고 영화 스케줄 때문에 감독은 매 장면 촬영 때마다 혼자 기도를 많이 하며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인이 용서와 치유의 대상으로 그려진다는 것에 조금 불편함(?)도 있긴 했지만 미국도 진주만 공습 등 분명히 일본에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라 동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원자탄 리틀보이, 팻보이를 투하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이 정의로운 일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데는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리틀보이>는 전쟁의 어두움을 밝히는 8살 페퍼의 순수한 믿음의 힘에 관한 영화입니다. 리틀보이 페퍼는 순수한 존재이지만 전쟁터의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폭탄입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하시모토는 전쟁의 적국이지만 페퍼에게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감독은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두 개의 대립된 세계, 평화롭기 그지없는 페퍼의 작은 마을과 고통스러운 태평양 전쟁터를 설정하고 그 안에 리틀보이와 일본,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같은 시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전쟁이란 참혹함으로 전혀 다른 모습과 의미를 가지는 이중적 의미의 <리틀보이>를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영화 보는 시간 내내 아빠나 엄마와 같은 시선으로 페퍼를 응원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며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아역이 주인공인 영화의 성공 여부는 반이 아역에게 달려 있는데 주인공 페퍼 역을 맡은 제이콥 살바티는 맑은 눈동자와 거짓 없는 표정으로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선물해 줍니다. 촬영당시 8살이었던 제이콥의 실감 나는 연기로 인해 저를 비롯해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들었다 하며 눈물짓는 장면에서는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와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난민, 살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 <리틀보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 행사 소개

## EM & 청년부 Banquet

### 전혜나

11월 21일 저녁 6시에 친교실에서 EM Staple 목사님과 김상범 전도사님의 공동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EM과 KM 청년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공동체이지만 서로 예배 시간도 다르고 마주칠 일이 없어 잘 모르던 두 공동체가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더하나가 되어가는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A collaborative banquet has been hosted by both English Ministry and 청년부 at 11/30/2021. EM Pastor Staple and 김상범 전도사님 really engaged all of participants in to the center of God's divine grace.





# 행사 소개

## Fall Fest 2021

Jessica Um

Since the pandemic last year, college students at Crossroads were excited to get back into Halloween activities in-person this year. Fall Fest was the perfect way to connect students back together and keep previous traditions going. Students began to enter the church building at 7 pm dressed in their costumes, coordinated with their own LifeGroups. From Harry Potter costumes to characters from the new show, Squid Game, students began to get excited to see the other costumes that other LifeGroups had put together. Care Team members had been working for a month to coordinate and plan the event, which was MC'ed by Madison Kanjanasim and Luke Yun.

The event started off with Costco pizza, provided by Pastor John. Students were assigned to various teams, where they sat down and got to know each other. After eating, officially started the game off with Marshmallows and Spaghetti Noodles. Essentially, each group had a certain amount of time to use marshmallows and spaghetti noodles to create the tallest tower. The first seven groups to create the tallest tower were then awarded a pumpkin carving kit. The other groups were given metal utensils to carve their pumpkins. Which then led the event to the next game: Pumpkin Carving Contest. Each group had to develop their own ideas and carve pumpkins. In the end, Pastor John and his daughter, Minji, judged the pumpkins and picked the top three they liked the most. Finally, the event ended with the costume contest, where each LifeGroup came on stage to describe their costumes.

Fall Fest was a great way for college students to reconnect with one another and build a stronger community throughout the church. Hopefully, next year will also have many fun activities planned with many more creative costumes by LifeGroups.





# 행사 소개

## Operation Christmas Child

Nia Choi

Outreach Ministry Leader

Recently, Lifeway Ministry participated in Operation Christmas Child. Operation Christmas Child is a project of Samaritan's Purse,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serving people in need around the world with the goal of sharing God's love. The mission of Operation Christmas Child is to "demonstrate God's love in a tangible way to children in need around the world." Every Christmas season, this organization collects shoeboxes filled with toys, clothing, and notes to show the joy of this season that is Jesus Christ. This is a collective effort of many countries, volunteers, and prayers.

Pastor John approached me early October about this event, and I was immediately excited. This would be a great way for our ministry to come together and serve our global community. We set a goal of packing and collecting 100 boxes. We challenged each lifegroup and family to pack 4-5 boxes. This would be good opportunity for fellowship and serving for each lifegroup. My lifegroup, and many others, paired off and prepped boxes in groups of 2 or 3. Each group could decide whether to create a 'girl' or 'boy' box for a specific age group. I had a lot of fun choosing out toys and accessories for my box with my lifegroup member. This service event was also possible through our amazing Outreach team members, and I was so encouraged by their energy and time they put into making this happen from figuring out logistics to collecting boxes to dropping them off.

"Operation Christmas Child was such an amazing initiative and it felt like our church was truly working as a community! I loved having both the opportunity to see the work behind the scenes though Out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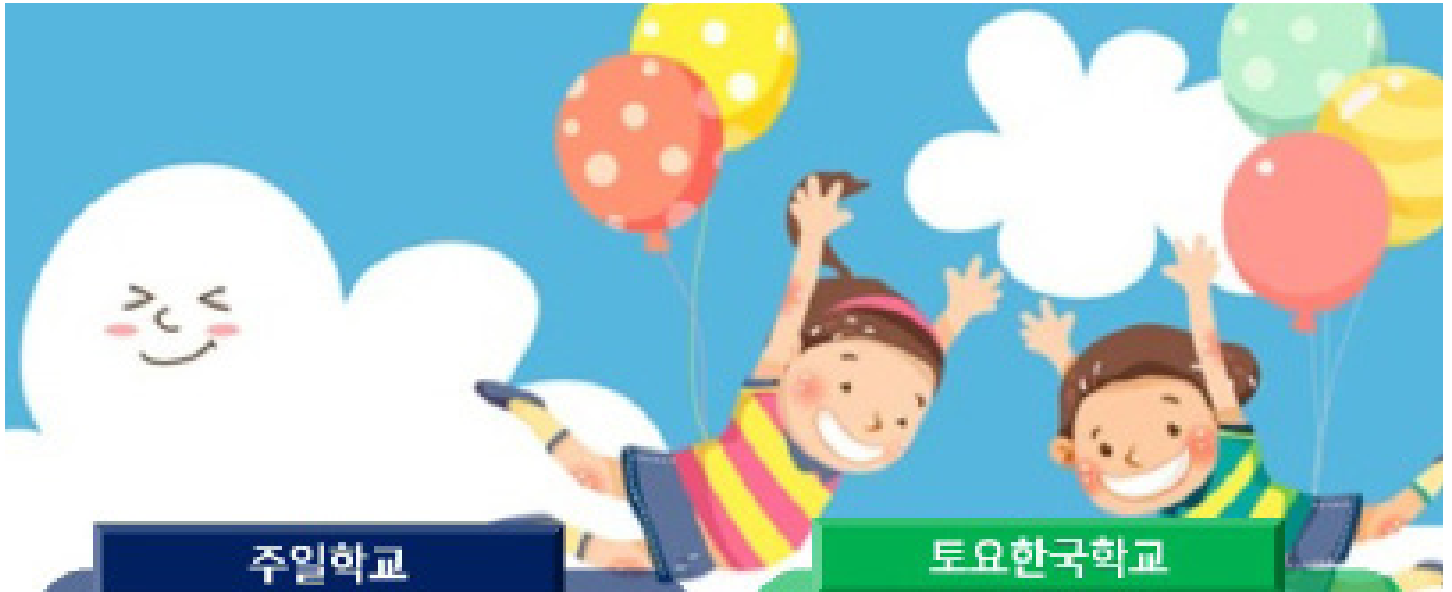
Ministry and working within life group to fill the boxes. Coming from a year of covid and virtual interactions, this was the perfect way to bond with my life group while getting to do well-intentioned work!” - Rachel Yi, Outreach Ministry Member

“I had a lot of fun packing a box and it was really great to see how willing the Lifeway community was to take time and collectively pack 100 boxes for Operation Christmas Child! It seemed like everyone was getting into the spirit of things and sharing evidence of God's goodness and grace.” - Eysl Baek, Outreach Ministry Member

As much as we may have made someone's Christmas, Operation Christmas Child was a blessing to me and a reminder that God is faithful to this ministry and His people. Thank you to every person who donated, prayed, and helped make this a success. I encourage you all to keep praying that hearts will be touched through these boxes and that God's love will be experienced in all nations. Merry Christmas!

Psalm 96:11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e glad; let the sea resound, and all that is in it.”





### 주일학교

영유아부 (0-36개월) : 이희정전도사  
 유치부 (만3-5세) : 꾀은희전도사  
 유년부 (1-5학년) : 이정민목사  
 중고등부 (6-12학년)

### 토요한국학교

교장 : 이성민집사, 교감 : 이성민집사  
 교사 : 김예진, 양민희, 이하연,  
 함선희, 박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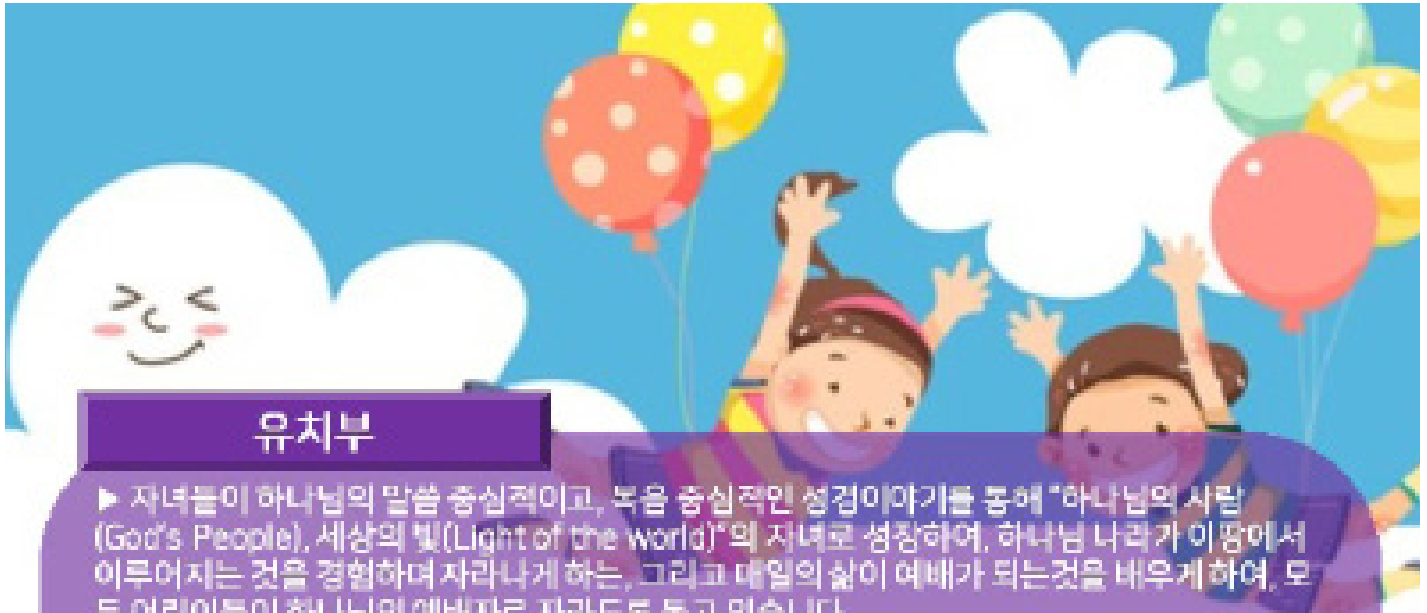
### 영유아부

- ▶ 0-3세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을 배울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현재 25명 안팎의 영유아가 영유아반에 함께 합니다.
- ▶ 시간표
 

10:00-10:30	자유롭게 모이는 시간
10:30-11:00	예배 기도, 어린이 찬양과 율동, 교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
11:00-11:20	간식
11:20-11:40	Activity (생일 어린이가 있는 경우 생일 자녀 축하)
11:40-12:00	어린이 찬양과 율동
12:00-12:20	교재를 통한 공과놀이
12:20-12:45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45-	귀가 시간







## 유치부

▶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성경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God's People),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 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것을 배우게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예비자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 ▶ 시간표 10:00-11:10 한국학교
- 11:15-12:10 경배와 찬양 (매월 첫주마다새 찬양 배우고 찬양해요)
- 기도송
- 말씀선포
- 말씀임송
- 헌금송 및 기도
- 광고 시간 및 환영송
- 주기도문송
- 12:10-12:40 공과시간
- 12:40- 귀가 지도

## 유년부

- ▶ 교육 목표 :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빌후3:18)
- ▶ 시간표 예배시간 11:15-12:10 (2층 소예배실)
- 성경공부 12:10-12:30 (2층 각반 교실)
- 성가대 10:00-11:00 (유년부 성가대실)
- 찬양팀 10:00-11:00 (유년부실)
- 기타반 10:00-11:00 (A/B 반)



## AKPC 2022년 주요행사 일정표

월	주일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육회자
1	2	신년주일 정기담회 PTA 대상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신년 새벽기도회 (1/3-8)	전 PTA 대상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1/2)	
	9	22 지역방향/선교비전 나눔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 목자/목녀반 모임	1:1 동반자반 (연중지속, 16주) - 동반자/인도자 접수시작 (1/10~)	어린이 교육부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 (1/9)	
	16	임직서		EM Lifegroup Leader's Retreat (1/21-22) 청년부 수련회 (1/16-17) 청년부 목장 모임 개학 (1/9)	
	23	은퇴서		EM Lifegroup Leader's Training (1/26) 토요한국학교 개강 (잠정)	
	30		ECO 전국 대회 (1/31-2/3)	EM Young Adult Retreat (2/4-6)	
2	6	정기담회	1:1인도자반 1기 (2/9-3/30, 8주)	EM CNOW (2/9) EM Winter Life studies begin EM Heart to Heart Seminar (2/12) 청년 1:1인도자 양성 (장년 통합) UT AWAKE 개강예배 참가 (잠정) EM CNOW (2/16) CM Valentine's Day Activity CM Coffee Break 성경 공부 (2/17-4/28)	
	13	목자/목녀반 모임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2/23)	
	20	2021년도 결산공동의회		EM Rooted: Lifeway Revival (3/4-6) 유치부 PTA 간담회 (2/27)	
	27				

3	6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 정기당회		EM CNOW (3/9) EM Lifeline (3/16) CM Lent Memory Verses 유치부 봄소풍 (3/6)	
	13	목자/목녀 1일 영성 세미나 임광 절약 시간 시작 (Daylight Savings Start)	선교 컨퍼런스 (3/19)		
4	20	제직회(1)	1회 문학산책 (3/26)	정년부 새가족 환영회 (3/27)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3/30) EM Marriage Matters Conference (4/1-3) EM Life Studies begin 정년부 1:1 동반자만 진행	
	27		입교 및 세례자 교육 (4/2)		
	3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자 문답 (4/9)		
5	10	종려주일 세례/성찬식	성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11-16) 성 금요일예배 (4/15)	EM CNOW (4/13) EM Good Friday service (4/15)	
	17	목자/목녀만 모임 부활주일	종보기도 세미나 (4/23)	어린이 교육부 부활절 행사 (4/17, 부서별) EM Lifeline (4/20)	CAL 세미나 (4/18-23) 정년부 교역자 연장 교육 (4/27-30)
	24			EM Lifegroup Shepherd's Training (4/27) UT AWAKE 종강예배 참가 (잠정)	
5	1	어린이 주일 행사		어린이 교육부 어린이 주일 행사 (5/1, 부서별)	

		정기당회			CM 가정의 달 부모와 함께하는 무릎기도회 (5/7~28, 4주)	
8	Mother's Day 목자/목녀반 모임	성경 세미나 (12-15)		EM CNOW (5/11)		
15	성경 세미나			EM Lifeline (5/18)		
22	새가족 환영회 (잠정)			UT College Graduation Ceremonies (5/20-21) 토요한국학교 종강 (잠정) EM Parenting Seminar (5/28)		
29						김상범 전도사 안수식 (5/29, 잠정)
		성령강림주일 정기당회				
5		여름성경학교 (6/6-10)		어린이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부서별)		
12	목자/목녀반 모임			교육부/Youth 진급 주일 (Promotion Sunday)		
19	Father's Day	1회 교리산책 (6/25)				
26				청년부 목장모임 방학 (6/26)		
7	정기당회			어린이 교육부 Summer Camp AKPC! (7/4-7/22)		



10	목자/목녀반 모임					
17						
24						
31						
7	정기당회	Back to School 특별새벽기도	청년부 리더임명			
14	공전위원회 오리엔테이션 및 공전작업 시작 목자/목녀반 모임		EM Lifeway Retreat (8/19-21) 청년부 리더 수련회 (8/19-20)			
21			EM Life group Shepherd's Training (8/24)			
28			청년부 목장모임 개학 (8/28)			
4	정기당회	제자훈련 교역자반 (9개월) 2회 문학산책 (9/10) 어스틴 지역 추석경로잔치 (9/10)	청년부 수련회 (9/2-4) UT AWAKE 개강예배 참가 (잠정)			
11	선교비전 나눔 (구체적 방안) 목자/목녀반 모임		청년부 캠퍼스 사역 개시 EM C NOW (9/14)			
18	제직 선출 특별 공동의회 권사회 주관 교사 위원회(잠정)	2회 교리산책 (9/24)	EM Lifeline (9/21) CM Coffee Break 성경공부 (10주간, 9/18-11/27)			

25					어린이 교육부 가을 운동회 (부서별)	
10	2	정기당회	부흥회 (7-9) 1:1 인도자반 2기 (10/5-11/30)	어린이 교육부 가을 운동회 (부서별)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8주) 청년 1:1인도자 양성 (장년 통합) EM CNOW (10/12) EM Lifeline (10/19)	
	9	부흥회 목자/목녀반 모임				
	16	제직회 #2				
	23	정책당회				
11	30	종교개혁주일	임직자 교육 1회 (10/29) 임직자 교육 2회 (11/5)	EM Life group Shepherd's Training (10/26) 어린이 교육부 Fall Festival (10/29) 청년부 새가족 환영회 (10/30)	교역자 수련회 (11/1-11/3)	
	6	일광 절약 시간 해제 (Daylight Savings End) 정기당회	임직자 교육 3회 (11/12)	EM CNOW (11/9) UT AWAKE 총강예배 참가 (잠정)		
	13	목자/목녀반 모임 새가족 환영회 (잠정)		EM Lifeline (11/16) CM 크리스마스 슈박스		
	20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Break (11/23-26)	EM 청년부 Thanksgiving Dinner (11/19)		
12	27		3회 교리산책 (12/3) 성탄트리 장식 (11/30)			
	4	정기당회	입교 및 세례 교육 (12/10)			
	11	2023년 예산인준 공동의회 목자/목녀반 모임	입교 및 세례자 문답 (12/17)	청년부 목장 모임 방학 (12/18)		

18	세계식/성찬식	"성탄 바구니" 나눔 (잠정)	
25	성탄주일 온가족 연합예배 연합찬양대 성탄간타타	송구영신예배 (12/31)	어린이 교육부 성탄절 행사/선물 증정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 알래스카 선교

11월 알래스카 선교 보고  
(장준호 선교사)



저희 선교 소식을 좀더 빨리 알려드리고자, 앞으로 분기별로 보내던 소식을 월별로 보내려고 합니다. 매달 업데이트 되는 기도 제목들도 함께 이곳에서의 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신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교 소식을 이메일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yes2king@gmail.com)이나 문자(907-518-4411)로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바로 저희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에게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안에서 모두 평안 하셨는지요? 지난 10월은 저희 마을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해서 학교가 2주 동안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 사모도 이 범 유행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옆에 부모님들이 같이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 교사 일을 맡은 사모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학기가 시작할 때 4-5학년 선생님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범 유행 팬데믹 기간에 미주 전역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데 저희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시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임시교사로 지원을 해서 바로 4-5학년 반을 한 달 반 동안 맡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다른 생각 없이 학교와 아이들을 돕고자 지원 하였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가르친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하루에 7시간을 가르치는 것 외에 3시간 수업 준비와 2시간 성적을 기록하며 얼마나 선생님으로서 일들이 힘든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역과 학교 선생을 병행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말씀드리고 처음 2주 뒤에는 한 달간 수피만 가르치게 되어 조금 숨통이 늦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양들과 같았습니다(마 9:36).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들과의 한 달 반 간의 시간을 잘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필리핀에서 오신 선생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공부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영광을 돌립니다.

# 태국 선교

한준수\*이옥희 선교사 기도편지

79/190 Mu.4 BanFaapiyarom, Beungkamproi, Lamlukka, Pathumthani 12150, Thailand

태국 66-86-060-3355, 66-87-090-3355. 한국사무실 02-443-0883

미주사무실: 10582 Kate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714-774-9191

email: hanleethailand@gmail.com, junsoohan@hot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90818-929 GP 한준수 이옥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팬데믹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전립선 수술은 잘 되어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무지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어서 방광이 많이 상해 의사도 놀라고,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술 하루 만에 거의 기적처럼 요도가 열려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약을 먹고 있지만 두세 주 후에 의사의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람루까 교회 사역에 기쁨과 보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를 착실히 하던 두 자매 ‘플랭’ 과 ‘남판’ 이 드디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데 두 배 이상의 시간이 들었지만 잘 인내하고 순종했습니다. 이 두 자매가 계속 믿음이 자라고 람루까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뽕륙 교회가 드디어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기둥과 지붕 공사가 끝났고 이제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벽과 창문, 대문 공사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던 깡끄라짠교회도 예배당과 학생 기숙사가 곧 세워질 예정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태국의 비상사태도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공사 지연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미 확보한 부지가 길고 좁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마침 근처에 백 평의 땅이 매물로 나와 사게 되었습니다. 사고 보니 바로 붙어 있는 수백 평의 땅이 월드비전의 소유였고, 교회가 잘 들어서면 그 땅을 양도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깡끄라짠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건축되고 교회도 날로 부흥 성장하여 깡끄라짠 도시가 속히 복음화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카렌 교회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지 못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작심하고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카렌 성도들에게 12월은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성탄 행사를 하는데, 일 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고,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 전도 집회에도 많은 사람이 전도 받고 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주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내외가 건강한 가운데 복음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교동역자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1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드림.

기도 제목:

1. 세례 받은 플랭과 남딤 자매가 믿음이 크게 자라 교회의 사역자가 되도록.
2. 뽕룩 교회 예배당 건축이 속히 완성되도록.
3. 깡끄라짚교회 예배당과 학생 기숙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도록
4. 성탄 전도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사 비용도 잘 채워지도록.
5. 저희 내외의 건강과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

원지 전도사 내외





플랭과 남딤 자매 세레 문답 및 세레식



깁끄라짚 교회 새 부지와 뵙륙 교회 예배당 건축

# WHY

## REPUBLIC OF SOUTH AFRICA

AFRICA BIBLE BASED ACADEMY

### 잘 사는 나라?

1인당 GDP \$5,195 - 세계 85위, 아프리카 8위  
총 GDP - 나이지리아, 이집트 다음인 아프리카 3위  
크롬, 망간 백금 매장량 세계 1위,  
플라티늄,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  
세계에서 가장 긴 Wine route  
세계 최초 심장 이식수술 성공

### 종교 현황 ?

기독교 79.7% 4342만명  
No religious affiliation 10.2% 596만명  
Others 205% 148만명  
Do not know 1.2% 75만명  
Muslim 1.5% 89만명  
전통종교 4.2% 245만명  
힌두교 1.1% 56만명

2016년  
COMMUNITY  
SURVEY

### 멋진 여행지들 ?

유네스코 지정 8 곳의 유적지  
희망봉과 테이블 마운틴  
Kurger 국립공원 + 여러 사파리 공원, 게임 Farm  
아파르트헤이트 박물관  
세계적인 동굴들 (Cave)

이런 남아공에 선교가 필요 합니까?



# 남아공 선교의 당위성? 선교지수는?



**선** 교는 가난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선교지수'라는 단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선교지수'는 피 선교국의 개괄적 통계를 바탕으로 기독교 수용력과 세속화등 많은 항목을 연구 검토하여 선교의 당위성과 건강한 사역을 돕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 Q: 잘사는 나라, 남아공에도 선교가 필요한가요?

### A: YES

1. 유럽과 미국,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나라의 부유함과 관계없이 다방면에서 선교사의 도움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남아공은 정말로 부유한가?** 남아공은 부유한 나라(일인당 GDP:아프리카 8위)이지만 전 국민이 부유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30.1%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한다. 불평등은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삶의 질, 태도, 성향, 기질 등에서 심한 차이가 있음을 포함한다. 인구의 25%는 최극빈자에 속하며 그들은 하루 \$1.90로 생활한다. 상수도 시설은 세계 10위이지만 물을 공급받지 못한 마을도 여전히 많다. 상위 10%가 50%의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40%는 7.2%의 부를 나누고 있는 곳이 남아공이다.
3. 최근에 벌어진 폭동과 약탈사건으로 쇼핑센터와 상점 3000여개, 물류 창고, 공장, 주류판매점, 약국이 전소되거나 파괴되어 피해액이 340억불을 넘었다. 또한 실종사건, 절도, 강도, 살인, 마약, 동성애, 미혼모, HIV/AIDS (인구의 13.1% -797만명,2019), 외국인혐오 범죄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다.

사명;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다.

## Q: 기독교 79.7%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가?

### A: YES

1. **남아공 기독교의 허와 실 바로 알기** - 201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79.7% 속에는 ZCC와 아프리카 독립교회(AICs) 47.1%, 카톨릭 7.1% 그리고 3.8%의 여호와 증인, 물몬교, 동방정교회, 성공회등 포함되어 있다. 그 외 21.7% 속에는 오순절교회, 감리교, 화란개척교회등이 포함된다. 47.1%를 차지하는 ZCC는 구약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와 조상신 숭배를 혼합한 이단화된 교회이며, 그 외 많은 아프리카 독립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1.7%의 개혁주의 교회 중에도 아프리카 독립교회와 비슷한 형태의 교회를 현지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남아공의 복음주의 교회를 넓은 기준으로 구별할 때는 25% 내외, 좁은 기준으로 구별할 때는 15% 이하로 보고 있다.

2. 남아공의 목회자 수는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고 있는데 혹자는 20만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 도시를 벗어난 지역의 목회자는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 의해 목사라 불려지기도 하고, 자칭 사도, 선지자, 비숍의 칭호를 붙임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 바른 성경의 해석이 없기에 혼합주의, 변영신학, 신사도운동의 치유, 예언사역 중심의 잘못된 토착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3. 목사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수많은 사건들 - 치유를 빙자한 성범죄, 치유를 위해 휘발유나 뱀 먹이고 에프킬라를 얼굴에 뿌리기도 한다. 예배 중에 술을 먹고 새 신자에게는 축하주를 교회, 교인들에게 잔디를 먹게 하는 목사, 죽은 자를 살리는 쇼를 통해 신령함을 나타내려는 사건들이 있다.
4. 남아공의 사회적 문제들인 부정부패, 빈부격차, 절도, 강도, 살인사건, 미혼모, HIV/AIDS, 폭동과 약탈의 사회상은 79.7% 남아공 기독교의 허상을 보여주는 예이다.
5. 남아공 케이프타운 옆 카일리차는 인구 80만명 중 2.86%인 22,880명만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는 통계가 2005년에 발표되었다. 출석 성도 2.86%를 95%의 신학 훈련없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 실정이다.
6. “케이프 타운(남아공)에서 카이로까지” 라는 선교 슬로건을 내세운 이슬람 세력이 공격적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공의 기독교는 이슬람 세력의 선교전략을 대항하는 아프리카의 보루와 같은 위치에 있다.
7. **선교지수?** 불평등이 심한 나라, 허울뿐인 기독교, 범죄로 얼룩진 남아공, 그러나 아프리카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무지개 나라 남아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사랑을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남아프리카 기독교의 허와 실을 봄으로 편견 버리기 !



## 남아공 선교의 과제 & ABBA

### I.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훈련이 중요하다.

세계적인 우수한 신학대학이 있지만 초,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많은 현지 목회자들은 들어 갈 수도 없다. 소명과 여러 모양의 동기로 목회의 길을 걷는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ABBA(아바)가 세워졌고, 그 사명과 함께 달리고 있다.

### II. 신학교 문을 나선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 포괄적인 목회 협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의 영성, 목회 양육시스템, 교회 리더 훈련 등에 협력함으로써 말씀 중심의 건강한 목회를 하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III. 다음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식민지와 APARTHEID(인종분리)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학교, 청소년 캠프등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려 한다.

### IV. 선교지이면서 동시에 아프리카 선교의 거점 국가인 남아공의 중요성

대학 졸업생의 25%가 다른 아프리카 학생이라는 통계와 우수한 선교단체들의 본부가 설립되어 있다는 것은 남아공을 통한, 남아공과 함께 아프리카를 섬기는 것이 최선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ABBA도 남아공을 기점으로 아프리카로 확장 중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I. 단기팀 사역에서 소외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2020년 KWMA와 KRIM의 공동 연구로 파악한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에 의하면, 아시아 61.4%, 북미 9.4%, 유럽 8.6%, 아프리카 8.5% 순이다. 아프리카에 비해 8배가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아시아에 단기팀이 많이 가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거리적 부담, 재정적 부담, 시간적 부담이 작용하여 단기팀 방문이 100배의 격차가 있다면 이는 소외이다.

II. 선교사 파송에서 소외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난한 나라를 선호하는 고국 교회들의 선교관, 단기팀을 쉽게 보낼 수 있는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교회의 의도, 겉으로 들어난 기독교 비율의 허와 실을 보지 못하고, 남아공 선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로 선교사 파송국에서 제외되고 있다.

III. 후원 모금에서 소외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는 파송 모체의 뜨거운 중보 후원과,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선교사,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 후원이 조화를 이룰때 선교지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남아공의 독특한 선교지의 상황 - 고 주거비용, 고 건축비용 등 - 은 이해되지 못하고 종종 후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특히 ABBA 사역과 같은 무형의 사역(건물처럼 보여지는 사역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재정 후원에서 더욱 소외받고 있다.

주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바로 보는 후원자를 일으켜 주시고 선교 헌신자를 보내 주소서!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  
 아프리카를  
 품은  
**ABBA**

**I.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 133편)**

ABBA는 2008년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으로 시작되었다. 교육없이 자칭 목사, 사도, 선지자로 부르는 목회자들, 최소한의 주일 출석 신자와 주일 신자화된 교회의 모습,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를 보며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를 위한 이동신학교, 찾아가는 신학교로 지금까지 달려 왔다. 2021년 현재, 21가정의 한인 선교사들이 4개국 남부아프리카에 13개의 이동신학교 캠퍼스를 섬기며 목회자와 신학생을 훈련하고 있다.

**II. 선교지의 요청에 따라 신학교 사역을 넘어 포괄적 사역 확장을 꿈꾸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목회 양육시스템 제공, 교회 리더 훈련, 주일학교, 청소년 캠프 지원, 찬양팀 훈련, 의료선교등 여러 방면으로 목회를 돕고, 지역교회를 섬김으로 아프리카의 영적 기상도를 조금이나 바꾸고자 ABBA는 오늘도 무릎을 꿇는다.

ABBA는 12년을 달려온 초교파적 연합사역입니다.



# ABBA 사역을 돌아봅니다

1



## I. 강의 사역

강의는 주 1회 4시간 강의가 기본이나 강의지와 학생들의 여건에 따라 매월 2박3일(보츠와나), 분기별 2주(잠비아)의 집중 강의로도 진행되기도 한다. 남아공의 경우 2년 기본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연장교육으로 2년의 디플로마 코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플로마를 졸업한 학생 중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생에게는 현지인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함께 강의를 섬기고 있다. 한인 선교사들은 각자의 헌신으로 강의를 섬기고 있으며, 현지인 강사에 한해서 분기별로 교통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재정: 교통비지원, 복사비, 디플로마운영비  
년 \$4,000



## II. 개강 영성 수련회

매년 1분기에는 개강과 함께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함께 개강 영성수련회를 갖는다. 3박4일 일정으로 저렴한 장소를 빌려 한인 선교사 가정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갖는 수련회를 통해 함께 비전을 나누고 깊은 교제의 장을 갖는다. 선교사 자녀(MK)들에게도 별도의 수련회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재정: 숙박비, 식비, 행사 진행경비 년 \$2,500



ABBA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 ABBA 사역을 돌아봅니다 2



### III. 2·3분기 주일학교 세미나, 설교학 세미나 또는 특별세미나

개강 영성 수련회가 지나면 2·3분기에는 일일 특별 세미나가 진행된다. 부족한 수업 시간을 보충하기도 하며, 새로운 배움을 부여하는 시간이다. 토요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진행되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졸업생을 포함한 오픈 세미나가 진행된다.

재정: 장소 대여비, 참석인원 식사비, 기타 세미나 준비비 \$1,200



### IV. 졸업식

매년 2월에 갖는 졸업식은 ABBA가 많은 관심을 갖는 행사이다. 입학생 중 35%이상이 낙오하는 과정을 묵묵히 따라와 준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인교회담임목사의 축사와 아버지의 선교사, 백인교회 목회자들도 축하해 주는 자리이다.

재정: 장소 대여비, 식사비, 주석성경 선물비, 졸업장, 앨범 등등 년 1회 \$4,500

ABBA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 ABBA 사역을 돌아봅니다 3



## V. 신년 모임과 강사 워크샵

신년마다 ABBA의 가족들이 모여 신년하례회를 가지며, 연합을 공고히 하고, 새 임원과 함께 기도로 새 출발을 한다. 또한 매년 10월 첫주 방학기간에는 아바 강사들의 워크샵을 통해 아바신학교의 발전과 사역의 비전을 점검하는 과정을 갖는데, 강사 워크샵은 ABBA의 연합을 다지며 비전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숙박비, 식비, 행사 진행경비 년 \$1,800



## VI.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아바 강의 지원

강사가 부족한 잠비아와 보츠와나에 정기적인 강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 각 나라 ABBA의 졸업식과 특별 세미나때에도 방문 및 강의 지원으로 남아공 ABBA가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왕복 800km, 2000km, 2500km를 달리는 지원 강사의 교통비와 숙박비 일부를 ABBA에서 지원한다.

재정: 년 \$3,500

ABBA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 ABBA 사역을 돌아봅니다

4



## VII. ABBA 신학교 교재

ABBA는 "BIBLE TRAINING CENTRE FOR PASTOR" 에서 나온 10권의 기본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한다. 매년 4개국 아바 신입생이 200명 내외임으로 1000질의 교재는 3-4년 간격으로 인쇄를 진행한다. 교재 인쇄 및 운송비는 각 선교사들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재정: 1판 1000질 10,000권 인쇄 \$ 20,000

ABBA (Africa Bible Based academy)는 informal 신학교이며 배움의 기회 없이 목회를 시작한 목회자들을 찾아가는 이동신학교이다.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선교전략으로 시작된 이동신학교 사역은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섭외된 교회를 캠퍼스로 삼고, 지역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런 ABBA는 소속 선교사들의 특별 기부와 연 회비로 운영 되며, 2030 비전과 함께 새로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ABBA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여! 도우소서.

# ABBA 사역의 모델화를 꿈꾸며



- I. ABBA(AFRICA BIBLE BASED ACADEMY)는 신학교만인가?
- II. ABBA는 남아공 교회와 목회자들의 아픔을 보며 2008년 이동 신학교로 시작하였다. 남아공에선 2020년 1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에서도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신학교로써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커리큘럼 관리에 힘을 쓰고 있으며, 심화 교육과정인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하여 연장 교육에도 힘을 쏟는 INFORMAL 신학교이다.

### 그러나

2030 비전을 수립한 ABBA는 신학교 사역과 더불어 총체적, 포괄적 선교를 계획하고 있으니 신학교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포괄적 선교라함은, 아바의 시작과 함께 계획하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졸업생들의 목회 협력' 사역이다. 목회자를 위한 목회 세미나, 지역교회 연합 부흥집회, 목회양육 시스템 제공, 교회 찬양팀 훈련, 어린이 청소년 캠프 및 성경학교, 교회 리더 훈련, 전도 훈련 등에 헌신된 아바 선교사를 중심으로 ABBA가 역량을 모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연합을 시작하게 하시고, 진행하시고, 연합을 통해 선교의 모델을 세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ABBA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 태국 선교

존경하는 담임목사님께

목사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좇아 회개와 자복과 지난 9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코로나로 태국학교의 임시휴교령이 내려 태국 어린이 복음 학교 사역이 임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그동안 복음 학교 사역으로 돌보지 못했던 사역 중의 하나가 태국 내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타이야이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태국 안에 사는 이방 민족으로 태국에만도 3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치앙마이 도시에도 3만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이유로 미얀마에서부터 흘러들어와 정착한 민족인데 국제 난민의 지위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이 없어 대부분 노동자로 하루계층으로 멸시받고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도 중에 이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필요는 "빵"입니다. 어려운 생활환경과 대대로 내려온 거둬진 가난과 빈민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작은 쌀 한 줍과 생필품만으로도 만족하며 마음을 엽니다.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학교 휴교령이 내려 이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뒤에 가슴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게도 살지만, 마음이 정말 착합니다. 더러는 태국인들처럼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토속신앙으로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도 한 손에 필요한 빵을 전하고 한 손에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계속 흘러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빛진 자로 코로나 임시휴교령이 해제되어도 타이야이 사역을 병행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늘 큰 힘을 얻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목양 속에 더욱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사역마다 주의 동행과 특별한 보호 하심과 능력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혹시 특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이메일로 적어 주십시오. 함께 선교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2021.11.1

태국에서 이세우 고세령 올림.



# WE ARE THE CHURCH



CHURCH PLANTING PROJECT  
PROJETO DE PLANTAÇÃO DE IGREJA




# THE PLANTER



My name is Osnir Pires Menezes Junior but you can call me Ozzie, this is my nickname. I have been a pastor for 6 years. I am graduate in theology from the Independent Presbyterian Seminary of São Paulo-SP and also gradu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Unoeste in Presidente Prudente-SP. I am postgraduate in Applied Theology and Leadership from UniCesumar in Maringá-PR and concluded the Training of Church Planters by CTPI. I did the assessment to plant in Rio de Janeiro-Brazil and also in California-USA by Excel Leadership.

I am 34 years old, born in Presidente Prudente-SP. From 2014 to 2020 I served as the lead youth pastor in a church of 1,500 members. In this church I was baptized and later sent to the seminary. My ministry is focused on small groups, discipleship, evangelism, preaching and youth ministry. I have been married to Luma for 6 years.



Since I was an exchange student in high school in Michigan-USA on the year of 2005, JESUS put a special love in my heart for United States of America. Since that time GOD was preparing me to return many years later to bring the love of Christ back to all who do not know the Savior.

This new church planting project is part of the church planting movement that is reaching lives all over the world, and the city of Austin-TX can be deeply affected by this movement leading a new moment of spiritual revival for the glory of God.



**PLANTING CHURCHES IS GOD'S PLAN TO RESTORE THE WORLD,  
GIVING OUR LIVES TO THIS MISSION  
IS THE PASSION THAT DRIVES US.**

**If you share our passion, I invite you to be our partner planting a new church in Austin-TX-USA.**

**1. WHY AUSTIN-TX?**

**2. GET TO KNOW THE CITY**

**3. OUR STRATEGY**



# WHY PLANT A CHURCH IN AUSTIN-TX?

## 5 REASONS WHY AUSTIN IS A STRATEGIC CITY TO PLANT A BILINGUAL PORTUGUESE/ENGLISH SPEAKING CHURCH

- In 2021 the number of population is 1,011,790 residents, it is a rapidly growing city.
- It is a multicultural city with 34.8% of Latinos and Hispanics.
- The Brazilian community is represented by approximately 10,000 people.
- There are only 2 Brazilian churches in the city with combined attendance 200 members or only 2% of the Brazilian community. God has called us to reach the remaining 98% of the unchurched Brazilian community.
- The majority of unchurched immigrants are under the age of 35 years old, these young adults represent future families and expanding harvest.



## 1. WHY AUSTIN-TX?



# A PIECE OF BRAZIL IN AUSTIN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 BRAZILIANS RESIDING IN AUSTIN**

### **BRAZILIAN CHURCHES IN AUSTIN**

#### **First Brazilian Baptist Church In Austin**

**Start: 1986 with a group of approximately 15 Brazilians**

**Local of service: Leased room but they are building their own place**

**Number of members (approx.): 130 people**

**Most relevant activity: Women's ministry**

#### **Assembly of God Pentecostal Church**

**Start: 2009 with home moving of a couple pastors from Florida to the city of Austin for work reasons.**

**Local of service: Building attached to an American Baptist Church**

**Number of members (approx.): 60 people**

**Most relevant activity: Women's ministry**



## 1. WHY AUSTIN-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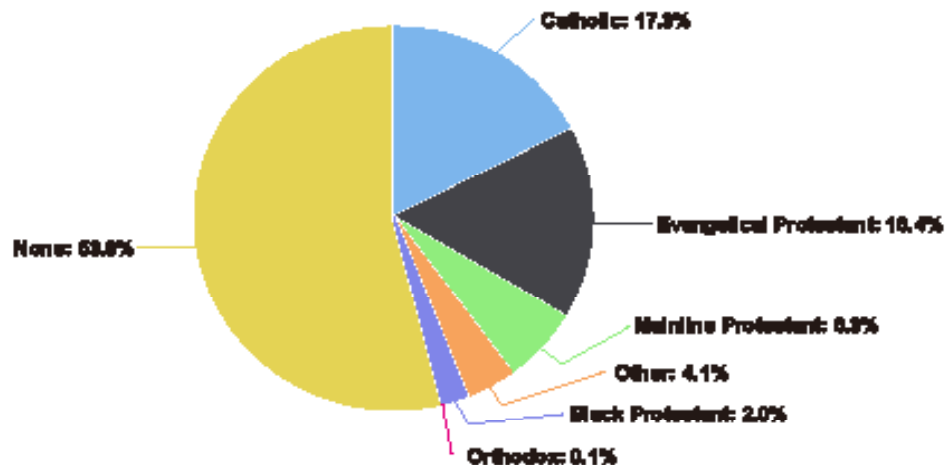


# THE CHALLENGES OF PLANTING A CHURCH IN AUSTIN-TX

Austin has a high level of religious diversity, combined with the high number of immigrants. In addition, because it is a very young and university city, it has great influence from a "creative class", that is, new ideas and tendencies often disconnected from faith and religion. Politically, Austin is considered by many people a liberal city in a conservative state.

Catholics represent 17.3% being the religion with the largest number of adherents, 53.8% of the population considered themselves not religious.

Religious Adherents in 2010



# A PLACE TO LAUNCH MOMENTUM

The capital of Texas is a rapidly growing city, thriving music, business expansion (Apple, Tesla, Amazon), the area provide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financially stable church which will soon be able to plant more churches.

Average annual salary: US \$ 63,717

Average house price: US \$ 461,608





# THE CITY IN 4 ILLUSTRATIVE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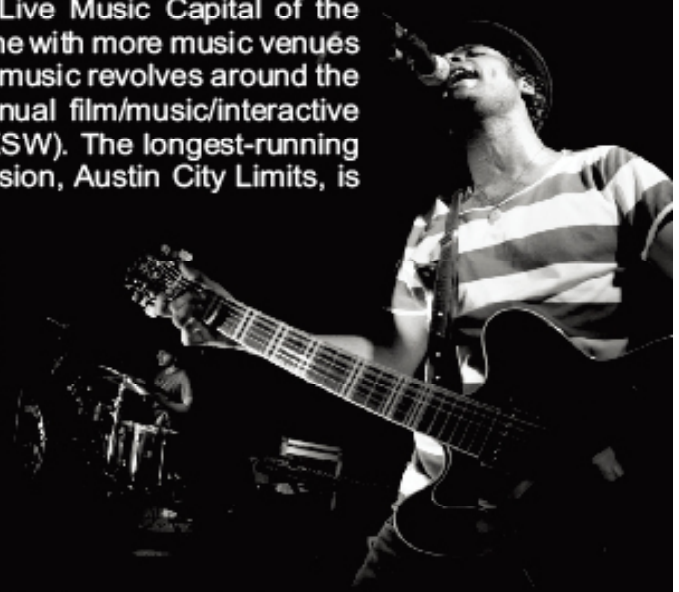
The city of Austin has 4 great icons that represent and define well its history. They are engraved in the heart of the austinites and those who have adopted the city as their own searching new opportunities. The music, the university, Texas capitol, and the new technologies.

Austin residents are a mix of college teachers, students, politicians, lobbyists, musicians, civil servants, workers and administrative employees.

## 1.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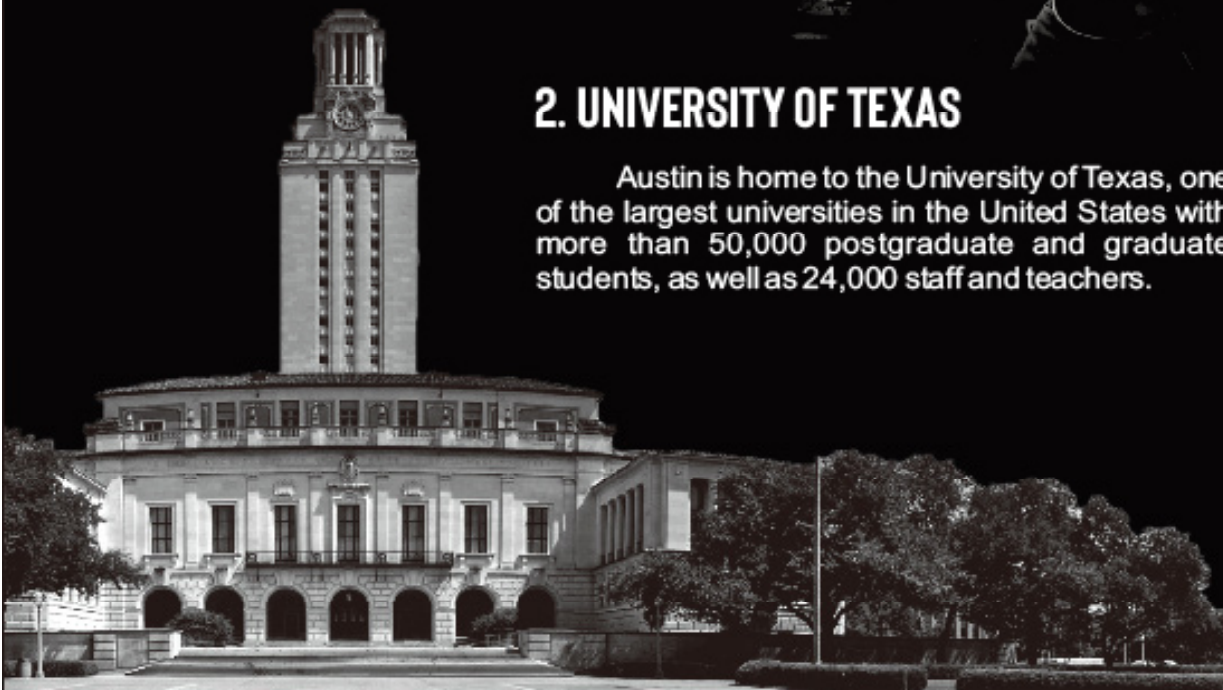
The Austin's official slogan is "The Live Music Capital of the World", the city has a vibrant live music scene with more music venues per capita than any other U.S. city. Austin's music revolves around the many nightclubs on 6th Street and an annual film/music/interactive festival known as South by Southwest (SXSW). The longest-running concert music program on American television, Austin City Limits, is recorded at the city.

In recent years, some Austinites have adopted the unofficial slogan "Keep Austin Weird". The slogan refers to the eclectic and progressive lifestyle of many residents, further refers to a campaign that desire to protect small, unique, and local businesses from being overrun by large corporations.



## 2. UNIVERSITY OF TEX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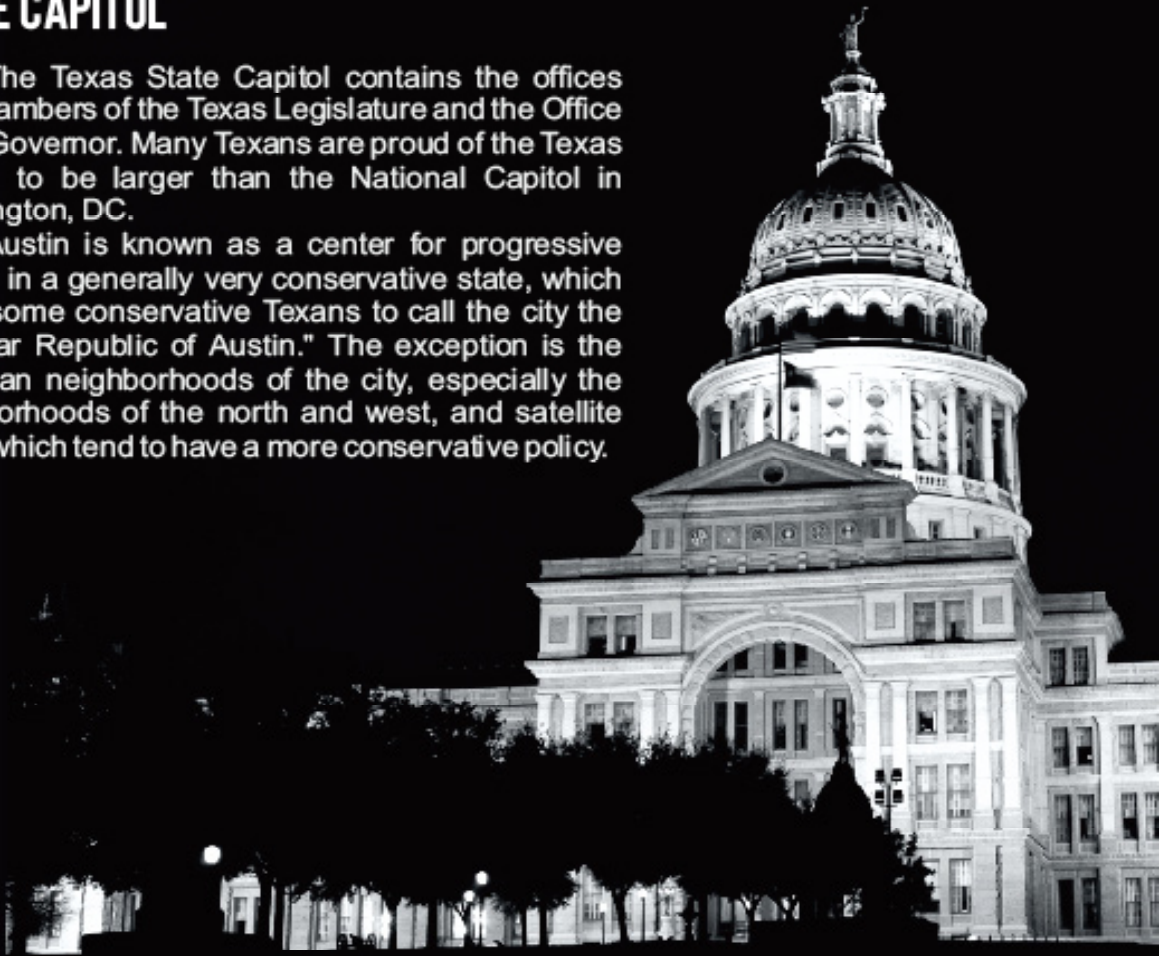
Austin is home to the University of Texas, one of the largest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000 post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s well as 24,000 staff and teachers.



### 3. THE CAPIT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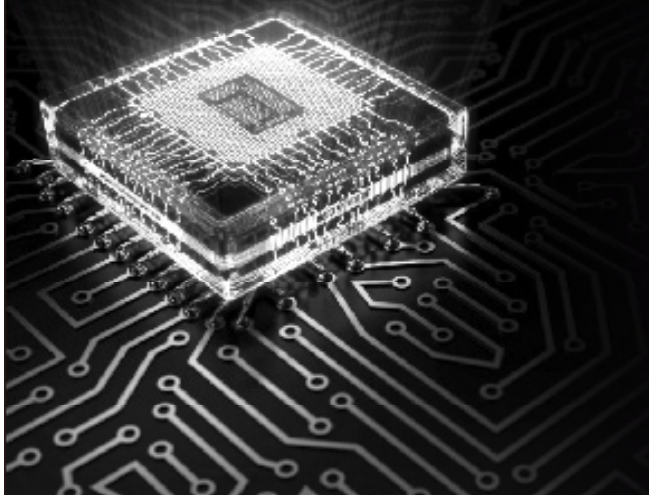
The Texas State Capitol contains the offices and chambers of the Texas Legislature and the Office of the Governor. Many Texans are proud of the Texas Capitol to be larger than the National Capitol in Washington, DC.

Austin is known as a center for progressive politics in a generally very conservative state, which leads some conservative Texans to call the city the "Popular Republic of Austin." The exception is the suburban neighborhoods of the city, especially the neighborhoods of the north and west, and satellite cities, which tend to have a more conservativ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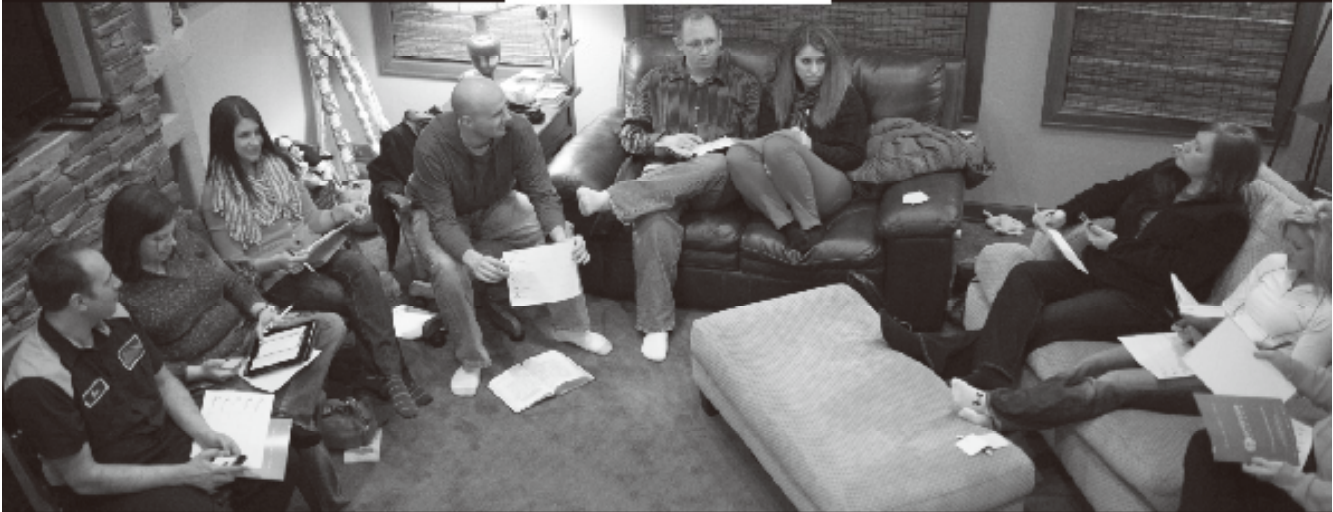
### 4. TECHNOLOGY

The city is home to many high-tech companies, a fact known as "Silicon Hills" (a name for California's Silicon Valley, home to many high-tech companies). Thousands of newly graduates from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colleges provide young and talented workers who help grow the city's economy.





### 3. OUR STRATEGY



## EVANGELISM THROUGH RELATION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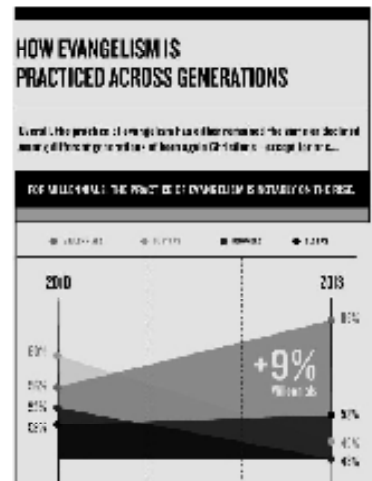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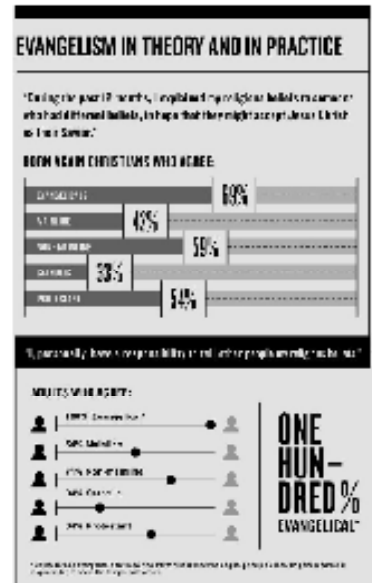
We understand that one of the main ways to communicate with the culture will be through the people who live in it and bring the gospel to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hrough their testimony whether in words or in their lifestyle.

According to the Barna research group in the USA, while the evangelistic practices of all other generations have either declined or remained static in the past few years, Millennials or Y generation (born in the late 1980s to the mid-1990s) are the only generation among whom evangelism is significantly on the rise. Their faith-sharing practices have escalated from 56% to 65%.

Not only that, but born again Millennials share their faith more than any other generation today. Nearly two-thirds (65%) have presented the Gospel to another within the past year, in contrast to the national average of about half (52%) of born again Christians.

This data is very relevant since the average age of the city of Austin is 30 years old, being composed approximately 22.5% under 18 years, 16.6% between 18 and 25 years, 37.1% among 26 and 44, 17.1% between 45 and 64, and 6.7% with 65 years or more. For every 100 women there are 105 men.

**THEREFORE, WE WILL DO THE EVANGELISM IN AN INTENTIONAL AND RELATIONAL WAY: ONE PERSON TAKING THE GOSPEL TO THE OTHER IN THE CONTEXT OF FRIENDSHIP.**



### 3. OUR STRATEGY



#### **BECOME A RESOURCE FOR IMMIGRANTS**

Assist new immigrants in the city through a network of contacts for work and housing. We will also assist the immigrant students, helping with documentation and housing at University campus.

#### **FORUM, COURSES AND MUSICAL PRESENTATIONS**

These will be directed to the unchurched, seeking to answer from the gospel, questions they ask in the most diverse subject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rofessional career, pop culture, married life, children education, among others topics that will arise.

#### **MESSAGE SERIES**

The preaching will be centered on the gospel, so that Christ Jesus will be evident in all the messages. Through contextualized series we want to have relevant encounters that touch the heart of the lost.

#### **SMALL GROUPS**

These will be group meetings that will happen in homes to experience God's love, grow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ach new people.

#### **DISCIPLESHIP**

We will offer a biblical and evangelistic training for all, so that everyone feels prepared to communicate the gospel. In this way, all will be brought to Christian maturity and a missional life.

### 3. OUR STRATEGY



#### EVANGELISM AT THE UNIVERSITY

We will host weekly campus connection groups for students at the University.



#### EVANGELISM THROUGH SPORT

We will connect with the young community through sport-based small groups such as soccer and volleyball.

## SCHEDULE

#### FIRST YEAR:

- Setting the planter and wife;
- Beginning of the first contacts and meetings;
- Establish small groups and church leaders;
- Community outreach beginning: home groups, sports groups, students campus groups;
- Become a resource for the immigrants;
- Find a location for the beginning of public worship;
- Perform the 1st public celebration.

#### SECOND YEAR:

- Refine Sunday celebrations and small groups;
- Strengthen evangelistic activities;
- Expand and improve leadership team;
- Perform forum, courses and musical presentations;
- Strengthen the identity of the church;
- Create and feed the profile of the church online: website, facebook and Instagram.

#### THIRD YEAR:

- Identify and begin equipping our first church planter to help us reach immigrants who are unchurched;
- Strengthen the immigrant community relationship with actions of generosity: donations, groceries, documentation, etc;
- Increase church outreach through social media and our communication online;
- Perform popular traditions and celebrations for the community.



# INVESTMENT

## ALL-IN AS AMERICAN MISSIONARY CHURCH PLANTERS

**YOU ARE NOT INVESTING IN JUST A NEW CHURCH, BUT YOU ARE INVESTING IN A MOVEMENT.**

**WE ARE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OF OUR HEARTS IN THE MISSION OF PLANTING THIS CHURCH WHO WILL SOON BE INVESTING IN MISSIONS AND PLANTING NEW CHURCHES. WE COUNT ON YOUR GENEROSITY AND FAITHFULNESS TO EXPAND THE KINGDOM.**


STAFF SUPPORT	MONTHLY	QUARTER	ANNUAL
Pastor Housing	\$ 1,350.00	\$ 4,050.00	\$ 16,200.00
House Maintenance	\$ 30.00	\$ 90.00	\$ 360.00
Apartment Insurance	\$ 15.00	\$ 45.00	\$ 180.00
Utilities	\$ 150.00	\$ 450.00	\$ 1,820.00
Groceries and Toiletries	\$ 600.00	\$ 1,800.00	\$ 7,200.00
Cell Phone and Internet	\$ 200.00	\$ 600.00	\$ 2,400.00
Pastor Medical Insurance	\$ 200.00	\$ 600.00	\$ 2,400.00
Car Payment	\$ 350.00	\$ 1,050.00	\$ 4,200.00
Car Insurance	\$ 150.00	\$ 450.00	\$ 1,800.00
Car Maintenance	\$ 80.00	\$ 240.00	\$ 960.00
Gasoline	\$ 200.00	\$ 600.00	\$ 2,400.00
Toll	\$ 40.00	\$ 120.00	\$ 480.00
Mailing and Postage Expenses	\$ 25.00	\$ 75.00	\$ 300.00
Pastor Ministry Expenses	\$ 300.00	\$ 900.00	\$ 3,600.00
Other	\$ 300.00	\$ 900.00	\$ 3,600.00
<b>Total Staff Support</b>	<b>\$ 4,000.00</b>	<b>\$ 12,000.00</b>	<b>\$ 48,000.00</b>

CHURCH SUPPORT	MONTHLY	QUARTER	ANNUAL
Outreach / Missions / Evangelism	\$ 700.00	\$ 2,100.00	\$ 8,400.00
Leader Training / Discipleship / Worship	\$ 300.00	\$ 900.00	\$ 3,600.00
Rent/Mortgage Building	\$ 3,000.00	\$ 9,000.00	\$ 36,000.00
<b>Total Church Support</b>	<b>\$ 4,000.00</b>	<b>\$ 12,000.00</b>	<b>\$ 48,000.00</b>

TOTAL INVESTMENT FOR THE FIRST YEAR OF PLANTING	PERIOD	INCOME
	Monthly	\$ 8,000.00
	Quarter	\$ 24,000.00
	Annual	\$ 96,000.00

**OUR GOAL IS TO FIND FINANCIAL PARTNERS, VOLUNTEER GIVERS AND ONE GIFT DONORS TO RAISE FUNDS OVER THE FIRST 3 YEARS TOTALING \$ 300,000**



A photograph of a church service. In the foreground, a person's hand is raised in prayer, palm facing forward. The background is a blurred church interior with warm, golden light from a screen or altar. The text is overlaid in white, bold, sans-serif font, enclosed in a white L-shaped frame.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4:13**

**IMB - AME E CIMAÇÃO**  
tel 08764 5060

# AKPC 지역 광고

**Tous les Jours**  
Austin

512-373-8080  
6808 N Lamar Blvd Suit B-115  
Austin TX 78752  
www.tljus.com  
tljaustintx@gmail.com



Kakao Talk ID: @hanyangmarket Email: austinhanyangmarket@gmail.com

**MARKET Hanyang**

Tel: 512.371.3199 6808 N. Lamar Blvd #A-110  
Fax: 512.371.3250 Austin, TX 78752

**Cuppa Austin Coffee Shop**

*\$1.00 OFF ANY DRINK*

9225 West Parmer Lane  
Austin, TX 78717

www.CuppaAustin.com  
512-382-6729



**Universal Motors/Services**  
Asian Imports & Domestic Service Since 1993

**David Chong**  
ASE Certified Technician

24 HR TOWING

A/C Service  
Brakes & Tune Ups  
Engines & Transmissions

7138 Hwy 290 E.  
Austin, TX 78723  
(512) 459-3939

Questions? Comments? Find us on Yelp!

**A+SM**  
Dry Cleaners & Alterations

Same Day Service Available  
30+ Years Experience

Mon - Fri 7am - 6:30pm  
Sat 10am - 2pm  
Sun/ Holidays CLOSED

8701 W Parmer Ln. #2122  
Austin, TX 78729  
Inside Artisan Apart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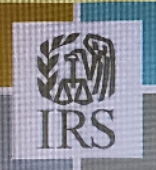
(512) 249-9013




**Anne Lee**  
Sales Agent

**Pohl Partners, Inc.**  
10800 Pecan Park Blvd, Ste 125  
Austin, TX 78750  
www.pohlpartners.com

c: 224.427.0925  
o: 512.335.5577  
anne@pohlpartners.com

 전 수 중 공인세무사(EA), MBA  
**명성 세무·교육 LLC**  
Tel. (646) 525-5900

**Hightone Tax & Ed LLC**  
13800 Lyndhurst St. #135 Austin, TX 78717  
smpchun@gmail.com



## B Bon Japa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2021년도도 이제저물어갑니다. 바이러스로인해 시간의 틀에 기름이 쳐진 것처럼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로써 세월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다보면 어느새 바이러스는 우리곁에서 멀어져가 있을테니까요.

문서선교부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Dear fellow Christian Members of AKPC!  
We seek for your original contributions to Mustard seed magazine. Let us build our tree of life in Christ together.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i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ill be supplied continuously.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seed magazine.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 day.

1.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있습니다. '제목: 문서선교에 관심있습니다' 라고만 해 주시고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2.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아래의이메일로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3.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 로고” 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mailto:kingkids780@hotmail.com)

임인년 새해벽두에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0620-0198

어스틴한인장로교회

#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A church that stands on God's Word

##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예 배	KM 1부 (한/영 동시통역)	주일 오전 8:30
	KM 2부	주일 오전 11:15
	EM(영어회중)	주일 오전 9:45
	청년	주일 오후 1:00
주 중 예 배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30
	화요기도회	화 오전 10:30
	토요무릎기도회	토 오전 6:30
교 회 학 교	영유아부	주일 오전 10:15
	유치부	주일 오전 11:15
	유년부(CM)	주일 오전 11:15
	중고등부(YOUTH)	주일 오전 11:15
	토요한글학교	토 오전 10:00
	칼립대학	금 오전 10: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45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00
목장모임	매월 1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 Fax 512) 454-6888

www.akpc.org / akpc@akpc.org